

2022 아랍에미리트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목 차

2022
아랍에미리트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1. 개요	2
가. 시장전망	2
나. 주요 경제지표	2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3
가. 워드 코로나의 신호탄, 2020 두바이엑스포	3
나. 에너지·제조업 분야 내 지속가능성 제고	4
다. 건국 50주년을 맞아 'Projects of the 50' 출범	5
라. 회사법 개정과 ICV 강화로 투자진출 활성화 예상	6
마. GCC 회원국 간 연대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	7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가. 정치 환경	9
나. 경제 환경	10
다. 산업 환경	13
라. 정책·규제 환경	17
2. 시장분석	20
가. 시장특성	20
나. 교역	22
다. 투자	25
라. 프로젝트	27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9
가. 교역	29
나. 투자	32
다. 프로젝트	33
라. 주요 경제협력 의제	35
III. 진출전략	3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40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1
3. 한-UAE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54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59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61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63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4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65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상승 코로나19 영향권 탈출 및 경제 정상궤도 안착 기대

- (호조) 작년에 이어 석유 및 非석유 부문의 나란한 회복세 예상
 - '22년 국제유가는 UAE 재정균형유가(US\$ 60.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경기부양책 추진과 저유가로 악화됐던 정부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
 - 공격적 백신접종*을 통한 신속한 비즈니스 활동 재개와 Expo 특수('21.10~'22.3)에 따른 서비스산업(관광·숙박·항공 등) 실적개선이 내년도 경기회복 주도 기대
- * '21.10월 말 기준, 1차 이상 접종률 97.4%로 전 세계 1위 (UAE 보건예방부)
- (부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역내 리스크 상존
 - 변이 확산에 따른 백신 돌파감염 증가 시 관광·교역 등 주요산업 내 영향 불가피
 - 아브라함 협정과 카타르 단교사태 해제로 역내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으나 GCC·이란 갈등과 예멘 내전(망명정부·아랍동맹군↔후티반군)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백만 명	9.85	10.14	10.43	10.75	11.08	11.42	11.77
명목 GDP	십억 달러	357.0	385.6	422.2	417.2	358.9	410.2	427.9
1인당 명목GDP	달러	39,145	41,444	45,076	43,900	38,661	43,538	44,753
실질성장률	%	3.0	0.8	1.7	1.7	-6.1	2.2	3.0
실업률	%	1.6	2.5	2.2	2.3	5.0	3.0	2.4
소비자물가상승률	%	1.6	2.0	3.1	-1.9	-2.1	2.0	2.2
재정수지(GDP대비)	%	-2.8	-1.7	1.9	0.6	-5.6	-0.5	-0.2
총수출	백만 달러	360,626	384,044	392,863	404,046	335,238	n/a	-
(對韓 수출)	"	6,941	9,557	9,287	8,991	5,693	5,225(9월)	-
총수입	"	350,388	345,514	333,838	347,450	293,726	n/a	-
(對韓 수입)	"	5,870	5,389	4,588	3,470	3,654	2,841(9월)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0,238	38,530	59,025	56,596	41,512	n/a	-
경상수지	"	13,206	27,474	40,499	35,372	10,973	28,392	25,981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67	3.67	3.67	3.67	3.67	3.67	3.67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57	141	151	212	189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6	104	104	179	199	n/a	n/a

주: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UNCTAD, UAE 통계청, Meed Projects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엑스포 개최를 통해 경기회복·신성장 모멘텀 마련
- ▶ 에너지·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 ▶ 건국 50주년을 맞아 신규 이니셔티브 'Projects of the 50' 발표
- ▶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와 ICV 강화로 투자유치 활성화
- ▶ GCC 회원국 간 연대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가. 위드 코로나의 신호탄, 2020 두바이엑스포

■ 내수경기 회복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 개최기간에만 62억 달러(국가 GDP의 1.5%) 수준의 경제적 기여 예상
 - 목표 방문객수인 2,500만명 유치 시 최대 33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905,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 엑스포 유치가 결정된 '13년을 기점으로 총 20년간의 경제효과(자료: 글로벌 회계법인 EY)
- 관광·숙박·항공업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예상

	2019년	2020년(e)	2021년(f)	2022년(f)
호텔객실점유율 (%)	74.1	54.6	61.9	67.5
항공사이용객 (천명)	29,351.0	8,238.2	12,042.6	-

자료: Fitch Solutions, Euromonitor

■ 폐막 후 혁신기업 육성·유치 위해 'District 2020' 조성

- 엑스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인 District 2020으로 용도 전환 예정

형 태	■ 경제자유구역(Freezone) 및 기업·주거 복합공간	
위 치	■ 2020 두바이엑스포 부지	
면 적	■ 연면적 기준, 총 2,500,000m ³ * (공간 활용계획) 사무공간 33%, 생활시설 30%, 주거공간 24%, 호텔 5%, 교육기관 4%, 상업시설 4%	

- 'Connect·Creat·Innovate'를 테마로 입주기업의 협업·창조·혁신 장려
- 현재까지 독일 SIEMENS와 두바이 항만 운영사 DP월드 등 입주 확정

- 혁신 스타트업·소기업 유치 프로그램 ‘Scale2Dubai’ 운영 (‘21.12.31까지 접수)
 - 선정기업 대상 무료 사무공간(2년) 및 창업비자(2년) 제공, 회사설립 비용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현지 VC·AC·투자가와의 네트워킹 기회 마련
 - District 2020에서 지정한 핵심 산업* 및 기술** 분야 기업 우선선정
 - * (Key Sectors)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스마트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
 - ** (Technologies)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나. 에너지·제조업 분야 내 지속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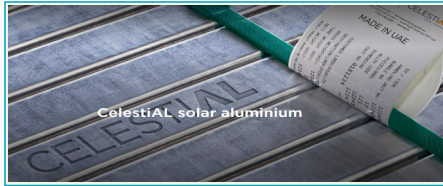
■ 탄소중립 실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 개발 박차

- (재생에너지) ‘UAE Net Zero 2050’ 이니셔티브(‘21.10월) 출범
 -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제시한 기존 탄소배출 저감 목표(70%)를 넘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이 0인 ‘Net Zero’ 국가로 변모
 - 탄소저감의 핵심수단인 신재생·청정에너지 개발에 총 1,634억 달러를 단계적 투입
- (수소) ‘아부다비 수소동맹’ 체결(‘21.1월)을 계기로 개발 박차
 - * 국영석유회사 ADNOC와 국부펀드 Mubadala 및 국영지주회사 ADQ가 체결한 수소개발 협의회
 - 전력·모빌리티·제조업 등 주요 분야 내 수소에너지 사용 가속화 등 수소경제 확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추진
 - Masdar City와 MBR 태양광단지 내 녹색수소 시범공장 설립 등 파일럿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중·대형 프로젝트 발표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
 - * Masdar City(국부펀드 Mubadala)와 MBR 태양광단지(두바이수전력청) 모두 Siemens社와 협력 중
 - ‘21.5월 ADNOC은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지에 연간 생산역량 100만톤의 블루암모니아 생산설비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사전설계(Pre-FEED) 추진 중
 - * ‘21.11월, ADNOC은 GS에너지(韓)·미쓰이(日)를 프로젝트 공동사업자로 선정해 지분을 각 10%씩 배정

■ 高탄소·에너지 집약적 주력산업 내 지속가능성 제고

- (철강) 녹색수소를 활용한 MENA 최초 녹색철강 생산 추진
 - ‘21.8월부터 국영에너지회사 TAQA와 국영철강회사 Emirates Steel이 협력 중
 - 수소 생산 시 2GW급 태양광플랜트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
 - * 생산된 수소는 철강제조를 위한 전력원 및 석탄을 대체해 환원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알루미늄) 세계 최초의 솔라 알루미늄 ‘Celestial’ 생산 확대
 - 두바이수전력청(DEWA)과 국영 알루미늄회사 EGA가 협력해 ‘21년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했으며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와 공급계약 체결
 - MBR 태양광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연간 40,000톤 이상 생산 예정

〈국영알루미늄회사 EGA의 솔라 알루미늄 ‘CelestiAL’〉



세계최초 태양에너지로 생산된 알루미늄으로 두바이 MBR 솔라파크에서 생산된 전력(연간 56만 MWh)을 활용하며 생산량은 연간 4만톤 이상. 올해 2월,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는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EGA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CelestiAL 43,000톤을 구매하기로 결정

자료: EGA 홈페이지

- (석유화학)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을 통한 그레이수소의 블루수소화 추진
 - 석유화학 공정 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다. 건국 50주년을 맞아 ‘Projects of the 50’ 출범

■ 다가올 50년을 대비하기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 50건 발표

- (1차) 통상·산업·투자 등 주요 부문 내 13개 이니셔티브 최초 발표
 - 향후 50년간 UAE 경제 발전가속화를 목표로 통상협력 확대(2개)와 디지털 역량강화(3개), 비자제도 개편(2개), 산업육성(4개) 및 투자유치(2개) 분야 내 프로젝트 추진
- (2차) 자국민 인재육성 위한 13개 이니셔티브 추가 발표
 - 민간 취업시장 내 자국민(Emiratis)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mirati Talent Competitiveness Council’을 신설하고 청년층과 숙련노동자를 위한 노동기회 창출

■ 중장기 국가전략 Centennial 2071 추진의 연장선

- 신규 중장기 국가전략 Centennial 2071(17.3월 발표)의 추진방향 구체화
 - 이번 ‘Projects of the 50’ 내 이니셔티브 50건을 통해 Centennial 2071에서 추구하는 4대 목표(Four Pillars)*의 구체적 달성방향 제시
 - * ①미래지향적 정부와 ②우수한 교육, ③다변화된 지식경제 및 ④행복한 사회
- 발표 예정인 잔여 이니셔티브(24건)를 통해 UAE의 미래 역점분야 윤곽 예상

라. 회사법 개정과 ICV 강화로 투자진출 활성화 예상

■ 상업회사법 개정으로 현지 투자진출 장벽 완화

- ('21.4월) 로컬서비스에이전트(Local Service Agent) 요건 폐지
 -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시 요구되던 로컬서비스에이전트 임명요건 폐지
- ('21.6월) 외국인 지분보유(Local Ownership Restriction) 제한 폐지
 - 현지 진출 시 외국인(기업)의 과반 이상 지분확보가 가능해짐.

■ 현지화 정책 간 통합 및 적용범위 확대

- 국영석유회사와 아부다비경제개발부 간 평가 산식 단일화
 - '20.2월부 양 기관의 현지화 프로그램인 ICV(In-Country-Value)와 ADLC(Abu Dhabi Local Contents) 간 산식 단일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주요 현지화 프로그램 ICV & ADLC〉

프로그램	ICV	ADLC
운영주체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아부다비경제개발부(ADDED)
적용산업	석유·가스 중심	별도 산업 제한 없음
적용기업	ADNOC 및 자회사	ADDED와 산하기관 및 국영지주사 ADQ 등
프로그램 개요	자국산 비율 제고를 위해 ADNOC이 도입한 오일·가스 분야 현지화 프로그램 '18.4월부터 ADNOC 및 자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대상 ICV 점수 제출 의무화	아부다비경제개발부(ADDED)가 '19.4월 신규로 도입한 아부다비 자체 현지화 프로그램 아부다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아부다비 소재 기업에 적용

- 현지화 프로그램 적용분야 및 참여기업 확대
 - '21.9월 'Projects of 50' 1차 발표 시, 연방정부 차원의 ICV 강화 천명
 - * (비중) '25년까지 연방정부·국영기업의 재화·서비스 조달 중 42% 이상을 현지화
 - * (도입기관) 향후 ICV 도입기관을 정부기관 45개소와 국영기업 15개사로 점진적 확대
 - * (조달규모) 자국 내 조달규모를 기존 330억 디르함에서 550억 디르함으로 증대
 - * (공급업체) ICV 참가 현지업체 수를 기존 5,000개사에서 7,300개사로 확대
 - '21년에만 아부다비 부동산 개발사 Al Dar와 아부다비 항만공사 Abu Dhabi Ports, 국부펀드 Mubadala, 원자력공사 ENEC 등 4개 기관이 ICV 참여결정

마. GCC 회원국 간 연대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

■ 사우디·UAE 간 경쟁 심화로 GCC 연대 약화 전망

- '21.7월 원유 감산유지 합의를 둘러싼 사우디·UAE 간 갈등 표출
 - OPEC+가 정한 생산쿼터에 UAE 측이 이견을 제기하며 합의 결렬
 - 사우디와 UAE 간 타협안이 마련되며 현재 갈등은 봉합된 상태이나, 향후 증·감산 협의 과정에서 난항 예상
 - * 시장 점유율 확대를 원하는 UAE와 높은 유가 수준을 유지하려는 사우디 간 입장차 존재
 - * UAE는 원유생산량 증대를 위해 '20년에만 석유 부문에 13억 달러 이상을 투자 (MEED Projects)
- 사우디·UAE 간 역내 주도권 경쟁 본격화 예상
 - MENA 비즈니스 허브 지위 놓고 두바이·리야드 간 글로벌 기업 유치전 격화
 - * 사우디는 '24년부터 자국 내 중동본부를 두지 않은 기업과 계약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 (사우디 관영 SPA)
 - 최근 사우디의 관광비자 허용('19.9월) 및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키디아·홍해) 추진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양국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이외, UAE가 예멘 내전 개입을 중단하는 등 외교에서도 '원 보이시 균열'

■ 양자 FTA(CEPA) 체결 확대 및 GCC 관세협정 약화

- 'Projects of 50' 1차 발표 시, CEPA 체결확대 발표
 - 교역규모 확대를 위해 8개국*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추진
 - * 한국·인도·인도네시아·터키·영국·이스라엘·케냐·에티오피아 등 8개국
 - 현재 한국과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3개국과 CEPA 협상 돌입
- 사우디의 독단적 관세인상 후 GCC 내 관세격차 발생
 - '20.6월 역외 수입품 대상 공통 관세율(5%) 원칙 깨고 단독 인상 단행
 - 사우디 측 관세인상 후에도 UAE는 종전세율(5%) 유지 및 개방적 입장 견지
 - '21.7월* 사우디의 GCC 역내 수입품 대상 관세면제 폐지로 GCC 관세협정 의미 퇴색
 - * UAE의 OPEC+ 감산유지 반발 직후 발표돼 보복성 조치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 중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안정된 국내환경과 달리 정치·군사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대외환경
- ▶ (경제) 유가회복 및 Expo 특수로 재정여건 개선과 非석유 분야 실적개선 기대
- ▶ (산업) 제조업 육성과 대체 에너지원 개발 등 탈석유·산업다각화 가속화
- ▶ (정책) 현지화 적용범위 확대와 투자 장벽제거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가. 정치 환경

■ (통치체계) MENA 지역 내 가장 안정적인 정치 환경 보유

- UAE 연방(내각)과 7개 토후국별 세습왕정 공존
 - 왕정 특성상 정책 연속성 확보가 용이하며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
 - 양대 토후인 아부다비 및 두바이가 연방 내 주도적 역할 수행
 - *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통치자가 각각 UAE 연방대통령과 부통령·총리직 겸임
- 연방정부가 제시한 비전 하 아부다비·두바이의 독자적 정책 추진
 - (연방) 거시적 비전·목표 제시 및 북부 토후국* 중점지원
 - * 푸자이라·라스알카이마·아즈만 등 독자적 정책 추진이 제한되는 소규모 토후국
 - (두바이·아부다비)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경제·산업 내 독자적 정책 추진

■ (대외관계) 친서방·비동맹 노선 견지와 對이스라엘 협력 강화

- (GCC) '81.5월 결성 후 경제·외교·안보 분야 내 상호협력 추구
 - 다만, 최근까지 이어진 카타르 단교사태('17.6월~'21.1월)와 원유 감산유지 합의를 둘러싼 UAE·사우디 간 갈등 표출로 GCC 간 연대가 약화된 상황
 - 사우디의 GCC 관세협정 이탈과 UAE의 독자적인 CEPA 추진을 계기로 향후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이스라엘) 수교 후 교역·투자·산업 등 다방면 내 협력 가속화
 - '20.9월, 美 트럼프 前대통령의 중재 하에 아브라함 협정 서명 및 외교관계 수립
 - 수교 후 1년, UAE와 이스라엘 양국 간 교역액은 7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정부·민간 차원에서 60여건 이상의 협정 및 MOU 체결
 - * 스마트 모빌리티, 방산, 항공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협력 중
 - 이란의 적대행위(무인기·미사일공격)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양국 대응공조 강화
- (이란) 강경보수 성향의 新정부 출범 및 앞선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관계악화 우려
 - '21.10월 하메네이는 UAE 등 이스라엘과 수교한 아랍국들을 비난하며 단교 촉구
 - 다만, 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면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향후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시 對이란 재수출 비즈니스가 재개되며 UAE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 UAE는 이란의 대외교역을 위한 필수 관문이며 UAE 내 거주 이란인 수만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
- (미국) '72년 외교관계 수립 후 중동 내 대표적 우방국으로 자리매김
 - 트럼프 행정부 시기 UAE·이스라엘의 관계정상화에 주도적 역할 수행
 - GCC 내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미국기업 1,000개사 이상이 UAE 진출
 - '94년 UAE와의 방위협정 체결로 미군 약 1,700명이 현재 UAE 주둔 중
- (중국) 일대일로로 전략적 파트너로 상호협력 확대 중
 - 시진핑 주석의 UAE 방문('18.7월)과 셰이크 무함마드 왕세제의 중국 답방('19.7월) 동안 양국은 총 29건의 MOU 체결 추진
 - '20년 기준, UAE의 최대 수입 상대국이자 인도에 이은 두 번째 수출 상대국
 - '20.12월, 세계최초로 중국 시노팜 백신 공식사용 승인 후 접종 확대
 -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21.3월부터는 '하야트(Hayat·생명)'라는 이름으로 시노팜 백신 현지 생산 돌입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21 이후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 (동향) '21년 UAE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 (IMF/'21.10월)
 - IMF는 '21.4월 전망치(3.1%) 대비 0.9%p 하향 조정
 - 당초 역내 긴장감 완화와 백신접종 가속화, 엑스포 개최('21.10월~'22.3월) 등 긍정요인이 다수 반영되며 3%대 성장이 기대됐으나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성장률 조정

- (전망) '22년 UAE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 (IMF/'21.10월)
 - '21.4월 전망치(2.2%) 대비 0.8%p 상향 조정
 - 국내외 '위드 코로나' 기조가 본격화되며 교역·서비스·제조 등 산업 전반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UAE의 관광 성수기* 및 두바이 엑스포 개최 시너지로 해외 관광객 입국이 확대되며 항공·숙박·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실적 향상이 전망됨
- * 11-3월까지 연중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로 유럽·러시아 등지로부터 피한(避寒)관광 수요 급증

〈2018-2022 UAE 경제성장률 동향 및 전망〉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f)
경제성장률(%)	1.7	1.7	-6.1(-5.9)	2.2(3.1)	3.0(2.6)

주: '21-22년은 추정·전망치 적용 / 괄호는 '21.4월 기준 전망치
 자료: IMF('21.10월)

■ (재정수지) '21년 유가 70달러선 회복으로 적자 폭 완화

- (동향) '21년, 재정적자 52.2억 달러로 전년 比 80% 감소 예상
 - '20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및 유가 급락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으나 '21년 유가가 UAE의 재정균형유가(US\$ 64.6) 수준을 상회하며 여건 개선
 - (전망) '22년에도 70불대 유가 유지가 예상되며 재정적자 감소 전망
 - '21.10월 美 에너지정보청(EIA)는 내년 유가를 배럴당 71.91달러(브렌트유)로 예상
- * Barclays와 SC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내년 유가를 70불선 내외로 예측하고 있음.

〈2018-2022 UAE 재정수지 동향 및 전망〉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정수지 (GDP대비,%)	1.9	0.6	-7.4	-1.3	-1.1
명목 GDP (십억 달러)	422.2	421.1	354.3	401.5	409.8

자료: IMF ('21.10월)

■ 기타 주요지표 - 제조업 경기확장 및 연내 디플레이션 탈출 기대

- (구매자관리지수*) '21.9월 53.3을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상승흐름 지속
 - * 제조·건설·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비석유 부문 경기동향지수로 50 초과는 경기 확장,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
 - 코로나 확산으로 UAE 전역에 통행제한이 시작됐던 '20.3월(45.2)과 4월(44.1)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백신접종 가속화와 비즈니스 정상화로 완만한 회복세 시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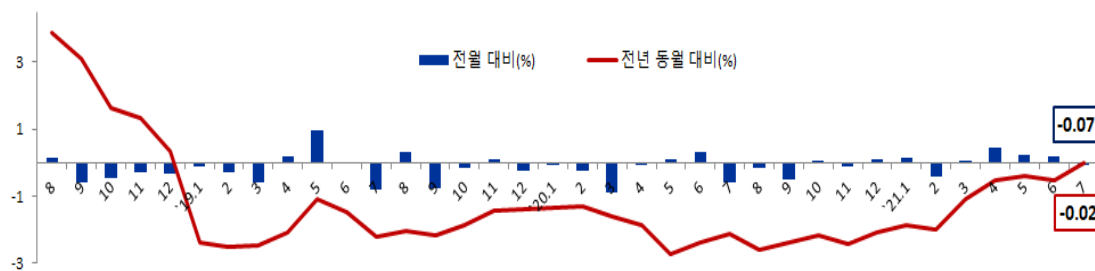
〈2020~2021년 UAE 구매자관리지수 추이〉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47.9	47.1	50.4	50.1	50.6	50.2	52.6	52.7	52.3	52.2	54.0	53.8	53.3

자료: IHS Makit ('21.10월)

- (소비자물가지수) '21년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디플레이션 종식 기대
 - '19년 부동산·건설 침체가 야기한 물가하락이 코로나19 확산 및 저유가 기조로 심화
 - UAE 중앙은행은 '21년 유가상승과 비즈니스 정상화로 부동산 가격과 민간소비가 회복되며 하반기 디플레이션 탈출할 것으로 예상

〈UAE 소비자물가 월별 추이〉



자료: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 ('21.10월)

다. 산업 환경

UAE 산업구조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 위한 노력 경주
 -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산유국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교역·서비스 등 비석유 부문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투자 박차
 -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제 석유·가스로의 산업편중도 지속적으로 완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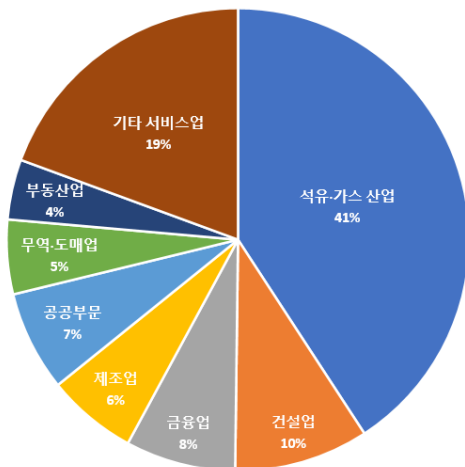
〈연도별 GDP 내 석유·가스 기여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176억 달러	30%	1,054억 달러	25%	618억 달러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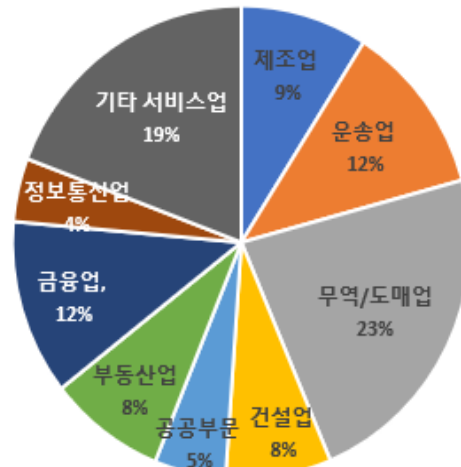
자료: UAE 통계청

- 아부다비·두바이 위주의 산업발전
 - * 부존자원과 인구규모 및 투자유치 정도에 따라 토후국 간 경제·산업 격차 발생
 - (아부다비) GDP의 41%가 석유·가스산업에서 창출되며 UAE 석유 매장량의 94%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국영석유회사 ADNOC과 산하 자회사를 통해 유전 탐사부터 석유화학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반에서 사업 추진
 - (두바이) 석유·가스 매장량이 저조해 일찍부터 무역·서비스·제조 중점육성

〈아부다비 GDP 대비 산업비중〉



〈두바이 GDP 대비 산업비중〉



자료: 아부다비 통계청(2020), 두바이 통계청(2020) * 입수가능 최신 수치

■ 석유·가스

- (석유) 최근 확인 매장량 증가로 세계 6위의 보유국 등극
 - * (매장량) '20년 기준, 1,048억 배럴로 세계 6위 (EIA)
 - * (일산량) '20년 기준, 365만b/d 배럴로 세계 8위 (BP연례보고서/'21년)
- 부존량의 94%가 아부다비에 매장되어 있으며, 두바이 내 매장량은 4%에 불과
- 과거 업스트림(탐사·생산) 중심으로 부를 축적했으나 근래 석유산업 고도화를 위해 다운스트림 (정유·석유화학) 분야에 투자 활성화

〈루와이스(Ruwais) 정유·석유화학단지 확장 프로젝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는 '25년까지 루와이스(Ruwais) 정유·석유화학시설의 생산 역량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하기 위해 총 450억 달러(약 48조원)를 투자할 계획

- * (정유) '22년 내 휘발유 생산량을 1,020만톤으로 증대
- * (석유화학) '25년 내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을 1,440만톤으로 증대

자료: 관영 WAM 통신

- (천연가스) 높은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발전 의존도가 높아 '순수입국' 상태
 - 연간 발전량 중 90% 이상을 천연가스에 의존 중
 - 향후 수출국으로 변모하기 위해 신규 가스전 탐사·생산 박차
 - * 작년 신규 가스전(제벨알리·마하니) 발견으로 매장량 세계 6위로 등극(총 7.7조m³)
 - * 對카타르 수입('32년 계약만료)과 현지 생산량 증가로 '24년부터 순수출국 전환 전망

■ 건설·부동산

- 침체 딛고 회복세로 전환 예상
 - '21년 UAE 건설시장은 389억 달러로 전년 比 5.9% 증가 예상
 - 작년 코로나 사태 및 저유가로 침체를 겪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은 올해 유가회복과 엑스포 개최효과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활력을 되찾을 전망

〈UAE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 US\$ 10억)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f)	2022년(f)
건설시장 규모	37.3	33.4	38.9	39.9

자료: Fitch Solutions ('21.4분기)

- 제조시설·발전소 등 산업설비 수요 확대 전망
 - 현지 제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으로 산업시설(제조설비·발전소) 건설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거용 빌딩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며 당분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

■ 제조

- 제조업 진흥 위한 정부 노력으로 GDP 기여도 점진적 확대
 - 연방·토후국 차원의 제조업 전략 수립·추진
 - * Operation 300Bn(연방), 경제비전 2030(아부다비), 산업전략 2030(두바이)
 - 현지 투자진출 장벽제거 및 현지화 요건 강화로 기자재 역내 조달 유도
 -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에너지 집약적 소재산업에서 점차 항공·우주, 방산, 식음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저변확대 추진
- 보건·식량 중요성 높아지며 현지화 속도 ↑
 - UAE 기업 G42 및 Julphar가 중국 국영제약사 Sinophar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나 백신 (Hyatt Vax) 현지생산 돌입 ('21.3월~)
 - 국가식량안보전략(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추진 통해 자국 내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박차 ('18.11월~)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과 세계식량안보지수〉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 (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	세계식량안보지수 (Global Food Security Index)
'51년까지 식량안보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현지 식량생산체계 구축 및 수급원 다변화 추진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총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식량안보 역량을 평가

〈연도별 GDP 내 제조업 기여도(금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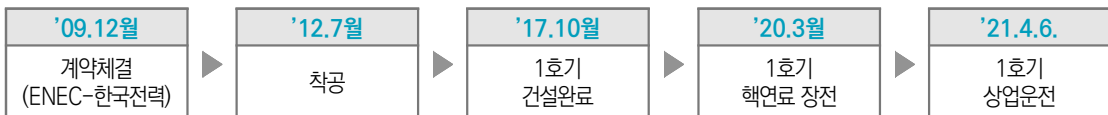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334.0억 달러	8.5%	367.2억 달러	8.7%	347.5억 달러	9.7%

자료: UAE 통계청 ('21)

■ 대체에너지(신재생·수소·원자력) 개발

- 태양에너지(광·열)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 태양광·열 발전이 가장 활발*하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 폐기물을 활용한 Waste to Energy 설비 프로젝트 수요도 빠르게 성장 중
 - * 태양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사막지형(국토의 80% 이상) 보유
 - 주 발주처인 아부다비전력공사(AD Power)와 두바이수전력청(DEWA)은 IPP* 형태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민간 투자자 대상 최대 40%의 지분 허용
 - * 민자발전산업(IPP) : 민간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발전소를 소유·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관파트너십(PPP)의 한 방식
- 수소경제 가속화를 위한 국내외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정부) 日·韓·英 3개국과 수소경제협력 관련 MOU 및 협정체결
 - * (일본) '21.1월, 연료용 암모니아 및 탄소재활용 기술 분야 협력 위해 MOU 체결
 - * (한국) '21.3월, 수소교역 관련 정책·규제 공유와 수소·탄소 재활용 기술 관련 협력 위해 MOU 체결
 - * (영국) '21.9월, 청정수소 및 CCUS 설비 구축 협력 위한 신재생에너지·수소 분야 내 협정 체결
 - (기업) ADNOC과 무바달라 등 UAE 기업(기관)뿐만 아니라 Siemens(독일)와 GS에너지(한국), Itochu(일본) 등 해외기업과의 협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
- 중동지역 최초의 원전건설·운영
 - '바라카 원전사업'이 추진 중이며 최근 원전 1호기 상업운전 시작

〈바라카 원전사업 추진내역〉



* 현재 1호기 준공·연료장전·상업가동 완료로 약 1년 간격으로 2~4호기도 순차 준공예정

* 향후 1~4호기 모두 상업운전 시 UAE 전력수요의 25%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

라. 정책·규제 환경

■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과 현지화(ICV) 적용범위 확대

● 연방·토후국 차원의 활발한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추진주체	정책명	주요내용	중점 육성 산업
UAE 연방	Operation 300Bn	2031년 내 제조업 부가가치 3,000억 디르함 (817억 달러) 달성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금속·식품·농업·의료기술 등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2030년 내 비석유 부문 GDP 기여도 64%까지 확대	금속·건설기자재·석유화학·의약품·식품료/소비재·항공우주·산업장비
두바이	산업전략 2030	2030년 내 제조업 부가가치 49억 달러 달성	항공우주·제약/의료기기·식품료·해양·알루미늄/금속가공·산업기계

- 기존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강점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에너지 집약산업 중점적으로 육성
-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기존 산업 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항공·우주, 식품료, 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저변 확대
- 공공조달 부문 내 ICV(In-Country Value) 적용 확대
 - 기존 ADNOC 발주 프로젝트(주로 석유·가스)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화 평가제도인 ICV를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 평가 표준으로 점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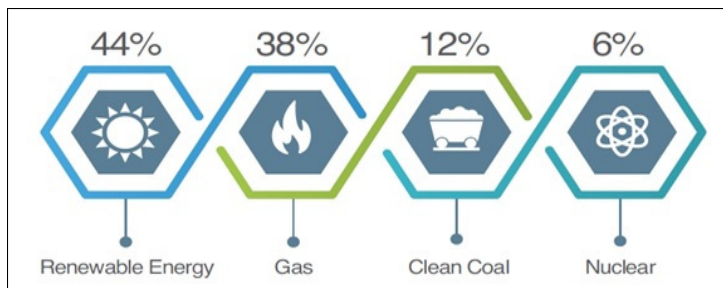
〈ADNOC 이외 ICV 3.0 통합 인증서 도입처〉

- ① 아부다비 정부 및 준정부 기관 일체
- ② 알다르(Aldar Properties)
- ③ 아부다비 항만공사(Abu Dhabi Ports)
- ④ 아부다비 환경청(Environment Agency Abu Dhabi)
- ⑤ 무사나다(Musanada, Abu Dhabi Central Services Company)를 통한 조달건 일체
- ⑥ 무바달라 투자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
- ⑦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 및 ADQ (ENEC은 아부다비 국영개발지주회사 'ADQ' 산하로 편입)
- ⑧ 아부다비 농식품안전청(Abu Dhabi Agriculture and Food Safety Authority, ADAFSA)

■ 에너지 전환 정책

- (연방) UAE 에너지 전략 2050 (UAE Energy Strategy 2050)
 - (주요내용) 에너지믹스 내 청정에너지 비중을 '50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고 발전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 70% 저감
 - (발전목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44%, 천연가스(Natural Gas) 38%, 정탄(Clean Coal)* 12%, 원자력(Nuclear) 6%
 - * Clean Coal(Fossil) : 기존 석탄(화석연료)발전 시 발생하는 공해(황산화물·먼지 등)를 최소화하는 발전방식으로 최근에는 탄소포집기술(CCUS)을 통한 탄소저감의 개념까지 확대
 - (투입예산) 2050년까지 1,630억 달러의 예산 단계적 투입 계획
 - * 다만,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은 종합적 비전 제시에 그치며 각 토후국 정부가 연방정부 전략의 틀 안에서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을 입안 및 실행

〈UAE 에너지전략 2050 목표 에너지믹스〉



자료: Ministry of Energy & Infrastructure UAE State Energy Report 2019

- (아부다비) 마스다르 이니셔티브 (Masdar Initiative)
 - (주요내용) 2006년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Mubadala가 신재생에너지 기업 Masdar社를 설립하며 출범한 전략으로 세계 최초의 탄소·폐기물 제로 도시인 「Masdar City」구축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주목표
 - (발전용량) 11 GW (운영 및 개발 중인 발전용량 총합)
 - * 아부다비는 '26년까지 태양광·열 부문에서만 5,70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
 - * UAE 국내를 넘어 총 30개국(MENA·유럽·태평양·미주)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중
 - (투입예산) 총 70억 달러 투자 전망
- (두바이) 청정에너지 전략 2050 (Dubai Clean Energy Strategy 2050)
 - (주요내용) 2020년 기준 약 7% 수준인 두바이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을 2050년까지 75%로 단계적 확대 추진
 - * 두바이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 : ('20년) 7% → ('30년) 25% → ('50년) 75%

- (발전목표*) 태양에너지(Solar) 25%, 원자력(Nuclear) 7%, 정탄(Clean Coal) 7%, 클린가스(Clean Gas) 61% 등

* 2030년의 목표 에너지믹스로 2050년 목표치는 향후 발표 예정

- (투입예산) 두바이 청정에너지 전략 2050 추진을 위해 약 27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그린펀드(Dubai Green Fund)」 조성

■ 현지 투자제도 개편

- 지사·연락사무소의 로컬서비스에이전트(Local Service Agent) 요건 폐지
 - '21.4월부 회사법 제 239조에서 요구되던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시 요구되었던 UAE 국적자의 로컬서비스에이전트 임명요건 폐지
 -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지사·연락사무소 단독설립과 상호 합의 하 기존 에이전트와의 계약해지가 가능해짐
 - UAE 국적자의 지분보유(Local Ownership Restriction) 요건 폐지
 - '21.6월부 회사법 제 10조의 UAE 국적자의 지분 51% 이상 보유요건 폐지되며 현지 진출 시 외국인(기업)의 과반 이상 지분확보가 가능
 - 다만, 연방정부의 법 개정·발효 후에도 지분한도와 적용산업에 대한 결정은 각 토후국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되며 실제 적용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아부다비는 '21.5월부 외국기업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한 분야(1,105개)를 경제개발부 웹사이트 상 게재

2. 시장분석

- ▶ (환경) 높은 청년층 인구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 MENA 최상의 인프라
- ▶ (교역) 석유·가스 관련 품목이 전체 수출의 48% 차지, 유가 부진으로 수출 감소
- ▶ (투자) 두바이엑스포 추진에 힘입어 FDI 규모는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 ▶ (프로젝트) 부동산 시장 공급과잉으로 최대 분야인 건설 프로젝트 발주규모 감소

가. 시장특성

■ 시장특성

- (인적환경) 25~39세 청년층 비중이 높은(53.8%) '젊은 시장'
 - '20년 국가 평균연령이 32.6세로 소비가 왕성한 청년층이 인구의 다수
 - 인구의 90%가 외국인 근로자로 여타 중동·이슬람 국가 대비 개방적 문화 보유
 - * 높은 외국인 인구비중과 활발한 수입으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UAE 국민(에미라티) 및 전문직·고소득 근로자와 건설·서비스업 분야 저소득 근로자 간 임금격차로 소비패턴 또한 프리미엄·중저가로 양극화
- (제도)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 일부 산업*을 제외 법인세·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천국'
 - * 석유·가스(두바이 50%, 아부다비 55%) 및 외국계은행(20%) 대상 법인세 부과
 - 외국인 지분제한 및 서비스 에이전트 제도 등 투자 장벽의 단계적 완화
 - 글로벌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금융 및 산업펀드 운영 확대
- (인프라) MENA 지역 최상의 물류·ICT 인프라 보유
 - 우수한 공항·항만 인프라와 다수의 Free Zone을 통해 역내 무역 중심지로 역할
 - * 세계 240개 도시에 노선을 보유한 두바이 국제공항과 MENA 최대 항구인 제벨알리항 운영
 -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과 MENA 최초의 5G 서비스 상용화
 - * '19.5월 중동 최초, 세계 4번째로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 성공
 - * '21.2월 UNCTAD가 발표한 세계 B2C 전자상거래 적합도 지표에서 세계 37위 및 중동 1위 기록

〈'20년 UAE·전세계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 비교〉

구분	UAE	전세계
인터넷	95.4%	61.2%
스마트폰	95.3%	59.0%

자료: Statista ('20)

■ 전략적 가치

- MENA 지역 한류 확산의 중심지
 - 최근 한국 음악과 드라마·영화 등 통칭 'K-콘텐츠'의 인기 확산
 - 높은 청년층 비중과 개방적 문화 덕분에 문화·콘텐츠 소비가 활발
 - * BTS(음악)과 오징어게임(드라마)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약진세가 MENA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짐
 - * UAE에만 한류 관련 팬클럽이 20개 이상 활동 중 (KOTRA 두바이무역관 확인)
 - K-콘텐츠 수용 후 SNS를 통해 인근 중동으로 확산시키는 한류 붐의 진원지 역할

〈중동 주요국 인구 대비 SNS · 모바일 SNS 사용자 비중〉

국가	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총 인구 대비 SNS 이용자 비중	99%	68%	63%
총 인구 대비 모바일 SNS 이용자 비중	92%	47%	53%

* 이용자 수는 국가별 활성화된 SNS 계정 수로 집계
자료: Hootsuite ('20년)

- 국내 스타트업·중세의 MENA 진출 테스트베드
 - 기존 기업대상 면세혜택과 최근 해외 스타트업·중세 수혜가능 정책* 확대
 - * 무함마드 빈 라시드 혁신펀드(MBR Innovation Fund)와 아부다비투자국(ADIO) 농업기술 프로그램 등
 - 거시경제 안정성과 역내 최상의 ICT·물류 인프라 등 선진국 수준의 정주여건
 - 제품·서비스 상용·현지화 후 UAE를 거점으로 중동·서남아 등 인근시장 진출 추진
 - * 실제 Kaykroo와 Kitch 등 공유주방(Cloud Kitchen) 업계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확장사례 존재

〈정책금융 사례. MBR Innovation Fund〉

주요내용	'15년 54.5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 펀드로 UAE 연방 재무부로부터 에미리트 개발은행(EDB, Emirates Development Bank)이 위탁받아 운영. 신재생에너지 포함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금융지원
선정방식	- 유관분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 평가항목(가중치) : ①산업적합성(30%), ②시장성(40%), ③혁신성(30%)
특이사항	- UAE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외국인(기업)도 지원 가능 - 제안된 사업 건에 따라 담보물이 요구될 수 있음

자료: 연방 재무부 · MBRIF 웹사이트

- 역내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 한-UAE 양국관계는 '18.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 이미 '06년부터 양국 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 격년 개최 중
 - 정부 간 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인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

〈한-UAE 경제공동위〉

한국과 UAE는 '06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한-UAE 경제공동위를 출범.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한)와 경제부(UAE)의 장관급 협의체로 범부처 차원의 협력 사안을 총괄·조정하는 경제협력 채널. 짝수년도 해에는 韓경제부총리-UAE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공동위가 개최되며 홀수년도 해에는 양국 정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점검회의 개최

자료: 기획재정부

나. 교역

■ 수출

- '20년 UAE의 對세계 수출액 규모는 전년 比 17.8% 감소
 - 코로나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원유·석유제품 수출실적 악화가 원인
 - 특히, 원유·석유제품 주 수출시장인 한국·일본으로의 수출 급감
 - * 對한국·일본 수출액은 전년 比 각각 43.2%와 37.5% 감소
- 최대 수출시장은 인도·일본·중국 및 인근 GCC 회원국
 - '20년 對인도·일본 수출액이 급감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9.5% 증가세
- 원유·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과 금속이 주요 수출품
 - 석유·가스 관련 품목 수출이 48% 가량으로 높으나, 지속적인 산업다각화 노력으로 인근 사우디·카타르 대비 낮은 수준
 - * '20년 기준, 사우디와 카타르의 광물성 원료(원유·석유제품·가스) 수출비중은 70% 이상

〈2018-2020 UAE의 對세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수출 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인도	25,385	28,548	22,548	12.3	14.0	13.4	△21.0
2	일본	24,895	24,712	15,449	12.0	12.1	9.2	△37.5
3	중국	15,493	14,021	15,348	7.5	6.9	9.1	9.5
4	싱가포르	9,509	10,154	9,787	4.6	5.0	5.8	△3.6
5	스위스	9,150	14,210	9,390	4.4	7.0	5.6	△33.9
6	오만	13,857	10,151	8,704	6.7	5.0	5.2	△14.3
7	사우디	10,488	9,505	8,382	5.1	4.7	5.0	△11.8
8	홍콩	4,222	4,201	6,769	2.0	2.1	4.0	61.1
9	터키	3,567	4,141	5,287	1.7	2.0	3.1	27.7
10	태국	9,099	7,039	5,175	4.4	3.4	3.1	△26.5
12	한국	8,819	8,520	4,839	4.3	4.2	2.9	△43.2
총계		206,721	204,393	167,945	100	100.0	100.0	△17.8

자료: IMF (입수가능 최신자료로 한국·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0년 UAE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HS Code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2709	석유 및 역청유 (원유로 한정)	48,266	31.2	△13.8
2	7108	금	27,033	17.5	41.4
3	2710	석유 및 역청유 (원유 제외)	20,469	13.2	△43.0
4	7102	다이아몬드	6,562	4.2	△43.2
5	2711	천연가스	6,073	3.9	238.5
6	7601	알루미늄 괴	4,420	2.9	3.0
7	7113	신병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귀금속)	3,710	2.4	△77.4
8	3901	에틸렌 중합체	3,165	2.0	32.2
9	3902	프로필렌 및 올레핀 중합체	1,548	1.0	24.1
10	7408	구리 선(Wire)	1,328	0.9	△42.4

자료: ITC Trade Map (UAE 통계청은 비석유 교역 통계만 제공)

■ 수입

- '20년 UAE의 對세계 수입액 규모는 전년 比 1.1% 축소
 - 작년 코로나 사태와 저유가로 인한 수입시장 부진 속에서도 對중국·인도의 수입액 및 비중은 증가세 시현
 - * 경기침체로 가격민감성이 높아지며 고가제품 수요가 중·저가제품으로 대체
- 對한국 수입액은 '14년을 정점(6위, 72억 달러)으로 점차 감소해 '20년 12위로 하락
- 자국 내 생산이 제한적인 품목 위주로 수입
 -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부품포함), 컴퓨터, 및 의약품 등 꾸준히 수입 증

〈2018-2020 UAE의 對세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대상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중국	39,208	36,699	36,860	15.5	16.2	16.3	0.4
2	인도	24,997	20,240	24,868	9.9	8.9	11.0	22.9
3	미국	23,547	18,219	18,055	9.3	8.0	8.0	△0.9
4	일본	14,426	12,534	11,181	5.7	5.5	4.9	△10.8
5	독일	10,940	13,782	8,256	4.3	6.1	3.7	△40.1
6	영국	9,019	5,567	6,767	3.6	2.5	3.0	△21.6
7	베트남	8,181	6,694	6,509	3.2	3.0	2.9	△2.8
8	프랑스	8,900	5,038	6,305	3.5	2.2	2.8	25.1
9	사우디	7,690	6,809	6,069	3.0	3.0	2.7	△10.9
10	이탈리아	6,657	6,283	5,860	2.6	2.8	2.6	△6.7
13	한국	5,264	3,500	3,463	2.1	1.5	1.5	△1.1
총계		252,185	226,819	225,924	100.0	100.0	100.0	△0.4

자료: IMF (입수가능 최신자료로 한국·UAE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0년 UAE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HS Code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8517	무선통신기기	16,050	9.5	△27.7
2	7108	금	12,045	7.2	△62.5
3	7102	다이아몬드	6,405	3.8	△41.4
4	8703	자동차	6,156	3.7	△55.7
5	7113	신변장식용품과 부분품(귀금속)	5,790	3.4	△61.1
6	2710	석유 및 역청유 (원유 제외)	5,415	3.2	△56.4
7	8471	컴퓨터	4,993	3.0	△13.2
8	8411	가스터빈 및 터보제트	2,778	1.7	△53.1
9	8802	그 밖의 항공기, 우주선 등	2,150	1.3	13.5
10	8708	자동차부품	2,003	1.2	△30.3

자료: ITC Trade Map (현재 UAE 통계청은 비석유 교역 통계만을 제공)

■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

- '21년 기준, GCC 차원의 세이프가드 2건과 반덤핑 1건 규제 중
 - (세이프가드) 콘크리트용 가공첨가제 및 도금강판 2개 품목 대상 연간쿼터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 톤(Ton)당 추가 관세부과
 - (반덤핑) 납축전지 분야 국내기업 대상 12~25% 반덤핑 관세부과

〈GCC의 반덤핑·세이프가드 현황〉

품목명	HS Code	유형	구분	품목분류	비고
자동차 배터리	8507.10	반덤핑	2017.6.25 (관세 부과)	전기전자	최종 판정, 관세 부과
도금강판	7210.70/90	세이프가드	2018.5.15 (관세 부과)	철강 및 금속	최종 판정, 관세 부과
콘크리트 가공첨가제	3824.40	세이프가드	2019.6.21 (관세 부과)	화학	최종 판정, 관세 부과
철강제품	72·73 일부	세이프가드	2019.10.23. (조사종료)	철강 및 금속	'21.9.2 미부와 결정

주: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무역구제의 조사·판정·관세부과는 GCC 차원에서 결정
 자료: 비관세장벽포털

- UAE 표준측량청(ESMA)* 주도의 적합성 인증 적용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체 적합성 인증(ECAS) 운영
 - * '01년 출범 이래 인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21년 산업첨단기술부(MOIAT)로 산하로 합병
 - 현재 우리기업 수출이 활발한 화장품과 전자기기 등도 규제 대상
 - * '18.6월부 수입 저전압 기기에도 UAE 적합성인증(ECAS) 로고 부착을 의무화
 - 수출 전 품목의 인증대상 여부 파악이 필요하며 인증 취득주체는 UAE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인 바, 취득 전 현지 파트너 선임이 요구됨.

〈ESMA 자체인증 - ECAS&EQM〉

구 분	ECAS			EQM		
						
유 형	적합성 인증 (강제)			임의인증 (품질마크 / 일부 강제)		
평가기준	안전, 에너지효율 등			제품 전 생산과정		
유효기간	1년			3년		
특이사항	ESMA 지정인증기관 통해 진행			취득 시 ECAS 면제		

자료: ESMA, KTL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종합

다. 투자

■ 투자유치 동향

- '20년 UAE의 FDI 규모는 198.8억 달러로 전년 比 11.2% 증가
 - FDI 규모 기준, 전세계 15위, 중동·북아프리카 1위* 기록
 - * 중동지역 전체 FDI의 42.6%를 차지
 - * '20년 對세계 FDI 유치 순위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홍콩
- 회사법 개정을 통한 투자장벽 완화 및 현지화 정책 강화가 FDI 증가에 기여
 - 2020 두바이엑스포 유치('13.11월) 및 개최('21.10월~)도 FDI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됨.
 - * 개최가 확정된 후 이듬해인 '14년부터 UAE의 FDI는 꾸준한 상승세를 시현

〈UAE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Inflow	9,605	10,354	10,385	17,875	19,884

자료: UNCTAD

- '20년 UAE의 대외투자액은 189.3억 달러로 전년 比 10.8% 감소
 - 투자액 규모 기준, 전세계 13위, 중동·북아프리카 1위* 기록
 - * 중동지역 전체 대외 투자액의 57.5%를 차지
 - * '20년 對세계 투자액 순위 : 1위 중국, 2위 룩셈부르크, 3위 일본
- 각 토후국 소유 국부펀드를 통한 활발한 대외투자 추진

〈UAE 연도별 대외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Outflow	15,711	14,060	15,079	21,226	18,937

자료: UNCTAD

- 장기체류 비자, '골드카드' 발급
 - '19년부터 투자가 및 기업인 위주로 발급 추진
 - * 최소 1천만 디르함(2.7억 달러) 이상 투자한 투자가·기업인에 한정
 - 이외 의학, 과학, 연구, 기술직 종사자 등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도 선별적으로 최소 5년의 체류를 보장
- 외국인 인구 유출을 대비한 '은퇴비자' 발급
 - '18년 이민법을 개정 후 '20.9월 두바이에서 실제 발급 시작
 - 55세 이상 무직의 외국인으로 부동산에 200만 디르함(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만 디르함(25만 달러) 이상의 은행 예치금을 보유한 경우 신청가능

라. 프로젝트

■ 시장개요

- '21.9월(누계) 프로젝트 발주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동기 比 40.6% 감소
 - 건설과 발전, 교통 등 프로젝트 전반에서 발주액이 감소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가스 분야는 전년 동기 比 166.8% 급증했으며 비중 또한 상승(2.6%→12.9%)
- '21년 기준, 건설 부문이 전체 프로젝트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가스(12.9%)와 수자원(9.9%), 석유(8.0%)순으로 높은 비중 보유

〈연도별 UAE 프로젝트 시장 발주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3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	8,516	56.1	8,663	40.3	13,089	55.4	10,336	51.5	6,081	56.8
석유	1,810	11.9	4,690	21.8	699	3.0	1,362	6.8	853	8.0
가스	-	0.0	884	4.1	696	2.9	518	2.6	1,382	12.9
발전	3,948	26.0	4,118	19.1	1,675	7.1	2,628	13.1	452	4.2
교통	246	1.6	1,306	6.1	5,966	25.2	3,026	15.1	371	3.5
수자원	639	4.2	1,778	8.3	999	4.2	1,479	7.4	1,064	9.9
기타	33	0.2	72	0.3	511	2.2	727	3.6	503	4.7
합계	15,192	100.0	21,511	100.0	23,635	100.0	20,076	100.0	10,706	100.0

주: 연도별 계약액(Contract Value) 기준

자료: Meed Projects

■ 부문별 세부동향

- (건설) 프로젝트 분야 최대시장, 공급과잉과 코로나로 수요감소로 몸살
 - '21.3분기(누계) 발주액 규모는 6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比 28.3% 하락
 - '19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공급과잉과 코로나로 인한 수요감소가 맞물리며 건설·부동산 분야 신규 투자 감소*

* '19년 말 Emaar와 DAMAC 등 현지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의 신규 프로젝트 중단 발표

〈연도별 건설 프로젝트 발주액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3분기)	2021.3분기*
금액(백만 달러)	8,516	8,663	13,089	10,336 (8,484)	6,081
증감률(%)	126.5	1.7	51.1	-21.0	-28.3

주: 2021년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Meed Projects

- (석유·가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분야 내 꾸준한 발주 지속
 - '21.3분기(누계) 발주액 규모는 2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比 18.9% 증가
 - '20년 석유 관련 프로젝트가 강세를 보인 데 반해, '21년은 가스 분야* 약진

* 벨바젼(Belbazem) 해상 유전개발(가스포함) 및 샤(Shah)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 낙찰

〈연도별 석유&가스 프로젝트 발주액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3분기)	2021.3분기*
금액 (US\$ 백만)	1,810	5,574	1,395	1,880 (1,880)	2,235
(석유)	1,810	4,690	699	1,362	853
(가스)	0	884	696	518	1,382
증감률(%)	-	208.0	-75.0	34.8	18.9

주: 2021년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Meed Projects

- (발전) 태양광과 WTE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 시장 전인 중
 - 다만, '21.3분기(누계) 발주액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1.7% 급감

* '20년까지 이어지던 발전분야 대형 프로젝트 계약행렬이 '21년 들어 주춤세

- 신재생·청정에너지 개발은 에너지전략·탄소저감계획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향후에도 활발한 프로젝트 추진될 것으로 전망

〈연도별 발전 프로젝트 발주액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3분기)	2021.3분기*
금액 (US\$ 백만)	3,948	4,118	1,675	2,628 (2,475)	452
(신재생)	3,866	1,573	1,132	2,049	0
증감률(%)	-	4.7	-65.3	62.6	-81.7

주: 2021년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Meed Projects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對UAE 수출 - 터키에 이은 중동 제2의 수출시장

- '20년 對UAE 수출액은 36.5억 달러로 對중동 수출을 견인 중
 -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對UAE 수출은 코로나 팬데믹, 저유가 장기화 등 부진요인을 극복하고 전년 比 5.3% 반등 * 2000년대 중반 수준 회복
- '21.3분기 對UAE 수출액(누계)은 28.4억 달러로 전년 比 1.2% 증가
 - 유가회복(70달러선)과 역내 긴장감 완화, 백신접종 가속화 및 엑스포 개최효과 등 시장 내 긍정요인 다수로 수출확대 기대

〈對UAE 수출 동향〉

(단위 : US\$ 백만, %)

연 도	對UAE 수출			무역수지
	금 액	비 중	증 감	
2017	5,389	0.9	△8.2	-4,168
2018	4,588	0.8	△14.9	-4,699
2019	3,470	0.6	△24.4	-5,521
2020	3,654	0.7	5.3	-2,039
'21.3분기	2,841	0.3	1.2	-2,383

자료: 한국 관세청

- '21년 하반기 경기회복 본격화로 다수 품목에서 고른 회복세 시현
 - 역내 리스크(예멘·이란) 상존으로 무기류 수출 꾸준히 증가
 - 하반기 경기가 되살아나며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순으로 수요 회복
 - 국제유가·정제마진 상승세로 석유제품 실적개선 및 수출액 급증
 - 무선통신기기·합성수지 등 실내생활 관련 품목 수요도 지속

* 휴대전화·태블릿 PC 등 무선통신기기와 식품포장재·PPE 주원료인 플라스틱 수요 증가

〈對UAE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1~9월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무기류	85	△40.0	2.4	201	135.8	5.5	339	142.1	11.9
2	자동차부품	399	11.9	11.5	291	△27.2	8.0	272	27.7	9.6
3	석유제품	268	△13.5	7.7	58	△78.5	1.6	145	208.5	5.1
4	원동기및펌프	98	△0.7	2.8	143	46.3	3.9	125	12.6	4.4
5	기호식품	103	△40.7	3.0	236	128.1	6.5	122	△34.1	4.3
6	자동차	190	△46.3	5.5	136	△28.4	3.7	120	13.2	4.2
7	합성수지	91	△0.2	2.6	96	5.8	2.6	107	46.6	3.8
8	무선통신기기	79	△21.8	2.3	120	51.3	3.3	87	2.4	3.1
9	공조기및냉난방기	133	63.0	3.8	122	△8.1	3.3	84	△13.4	3.0
10	기타정밀화학제품	12	14.4	0.3	87	652.3	2.4	81	47.3	2.9
10대 품목 합계		1,458	△15.2	41.9	1,490	2.2	40.8	1,482	33.3	52.2
총 계		3,470	△24.4	100.0	3,654	5.3	100.0	2,841	1.2	100.0

자료: 한국 관세청(MTI 3단위 기준)

■ 우리기업 수출 성공 사례

● (성공사례) 시장여건과 바이어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로 수출 성공

- A사는 PPF(Paint Protective Film)제조사로 이전까지 중동지역 수출이 전무했으나 '19년까지 러시아 등 2개국에 불과했던 수출시장을 보다 확대하고자 KOTRA 사업에 적극참여. '19년 총남 중동 무역사절단을 통한 UAE 방문을 계기로 현지 수출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KOTRA 지사화 사업에 참가
-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현지 비즈니스 상황이 악화됐으며 한 때 정부의 Lockdown 조치로 바어어와의 대면 미팅도 어려워짐. A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잠재 바이어 대상 유선·SNS 교신 및 샘플 송부 등 적극적인 비대면 마케팅 추진. A사와 두바이무역관은 노력 끝에 관심 바이어 B사를 발굴. 가격·수량 협상 시 바이어 B사는 A사가 제시한 MOQ 조건을 시장상황에 맞춰 완화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A사가 이를 수용하며 '20.9월 UAE 및 중동으로의 첫 수출에 성공했으며 '20.11월에 초도 수출액보다 큰 규모로 2차 수출에 성공
- '21년에도 수출 제품라인의 확대 등 양사간 비즈니스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A사는 코로나 사태로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됐음을 인지하고 협상 과정에 유연히 대처했으며 현지 바이어 특유의 느린 피드백에도 여유롭게 대처하며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거래 확대

■ 對UAE 수입 - 사우디·쿠웨이트와 함께 중동 내 3대 원유 수입대상국

- '20년 對UAE 수입액은 56.9억 달러로, 전년 比 36.7% 감소
 -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석유제품 수입액이 37.8% 급감한 탓
 - '20년 對UAE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로 전년 比 개선
 - * 주 수입품목(원유·석유제품)의 수입액 급감에 따른 적자 폭 완화
 - * 막대한 원유·석유제품 수입액으로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 보유
- '21.3분기 對UAE 수입액은 52.3억 달러로, 전년 比 12.3% 증가

〈對UAE 수입동향〉

(단위 : US\$ 백만, %)

연 도	對UAE 수입액			무역수지
	금 액	비 중	증 감	
2017	9,557	2.0	37.7	-4,168
2018	9,287	1.7	△2.8	-4,699
2019	8,991	1.8	△3.2	-5,521
2020	5,693	1.2	△36.7	-2,039
'21.3분기	5,225	0.6	12.3	-2,383

자료: 한국 관세청

- 석유제품·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반에서 수입액 증가
 - 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UAE의 제조업 육성 노력으로 금속(알루미늄·동제품) 등 비석유제품 수입액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對UAE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1~9월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원유	5,970	11.9	66.4	3,602	△39.7	63.3	2,906	△5.7	56.0
2	석유제품	2,370	△23.5	26.4	1,584	△33.1	27.8	1,704	40.0	32.9
3	알루미늄	232	△17.2	2.6	198	△14.7	3.5	241	62.8	4.6
4	천연가스	71	-	0.8	57	△20.0	1.0	120	605.9	2.3
5	동제품	91	△20.4	1.0	56	△38.9	1.0	90	136.8	1.7
6	LPG	97	△56.0	1.1	13	△86.2	0.2	40	207.7	0.8
7	동광	14	-	0.2	32	121.7	0.6	39	50.0	0.8
8	건전지및축전지	65	△9.5	0.7	50	△22.7	0.9	31	△13.9	0.6
9	기타금속광물	11	112.2	0.1	2	△81.9	0.0	8	700.0	0.2
10	연제품	24	△40.7	0.3	20	△16.9	0.4	6	△62.5	0.1
10대 품목 합계		8,945	△2.4	99.5	5,614	△37.2	98.6	5,185	12.8	99.2
총 계		8,991	△3.2	100.0	5,693	△36.7	100.0	5,225	12.3	100.0

주: 2021년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

자료: 한국 관세청(MTI 3단위 기준)

나. 투자

■ 對UAE 투자진출 - 중동 제 1의 투자진출 대상국

- '20년 우리 對UAE 투자액은 6.7억 달러로 전년 比 130.1% 증가
 - 기존 광업·건설업 위주에서 도·소매 및 서비스 등으로 다변화 추세
 - * '20년, 對UAE 투자액은 對중동 투자액(9.2억 달러)의 73% 차지

〈對UAE 투자진출 동향〉

(단위 : US\$ 천, 개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Q2	누계
신고금액	113,566	236,096	46,601	483,930	698,013	41,645	3,540,528
투자금액	125,517	203,858	154,668	291,837	671,646	7,298	2,648,034
신규법인수	23	26	8	13	12	6	485

* 주 : 법인수는 현지법인 기준 집계 * 1980년부터 투자 누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UAE에는 1966년 대림산업의 지점설립을 시작으로 총 172개 기업이 진출

〈국내기업 진출현황〉

(단위 : 개사)

진출형태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총 계	172
기업수	6		26		27		84		29			
업종	제조	건설	서비스	도소매	금융	운수	에너지	공공	보건	정보통신		
기업수	52	31	33	16	10	11	9	5	3	2		

자료 : KOTRA 두바이무역관 자체 집계 (2021년)

- (성공사례) 철저한 시장분석에 기반한 진출결정과 파트너 발굴

- C사는 스마트 배달통 제조사로 배달통 외부화면에 배송 중인 제품의 브랜드 정보를 송출해 이를 활용하는 각 배달기사를 도로 위의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C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UAE 내 배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계절·인구적 특성 상 향후에도 배달산업이 유망할 것임을 확신하고 UAE로의 진출을 결정
- 이후 C사는 KOTRA 지원을 통해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GITEX)에 지속적으로 참가했으며 배달산업 분야 내 파트너 D사 발굴에 성공. 현지 파트너인 C사는 자체 배달 라이더 운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D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보임. 양사는 '21.7월 JV 설립 후 제품 현지화를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며 2021 GITEX를 통해 추가 MoU 체결한 상황
- 현재 B사는 현지 경찰(Dubai Police)과 협업해 차량관리(Fleet Management) 및 블랙박스 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 중. 두바이무역관은 원활한 현지 진출을 위해 직원 채용 등 현지 법인 운영 관련 법률자문 제공 등 지속 지원 예정

■ 對UAE 투자유치 - 중동 제 1의 투자유치 대상국

- '20년 투자유치 신고액은 약 5억 달러로 쏠중동 투자유치의 90.7% 차지
 - 주요 투자주체는 국부펀드, 민간 개발사로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 진행 중
 - '20년 서비스업(운수·창고·정보통신) 분야로 투자유치 확대

〈對UAE 투자유치 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Q3		총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중동	70	1,066	69	594	56	756	67	547	54	141	3,104
UAE	12	1,014	6	541	7	261	11	496	7	134	2,446
비중	17.1	95.1	8.7	91.1	12.5	34.5	16.4	90.7	13.0	95.0	78.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투자통계 (신고기준)

다. 프로젝트

■ 對UAE 프로젝트 수주 - 카타르·사우디와 함께 중동 3대 프로젝트 시장

- (시장규모) '21.3분기(누계) 기준, 對UAE 프로젝트 수주는 총 7건, 6억 달러 규모
 - 전년 동기 比 69% 감소했으며 수주액 기준으로 해외시장 중 9위 기록
 - * '21.9월 한국의 주요 수주실적(억 달러) : 카타르(1위/22.3), 싱가포르(2위/19.5), 폴란드(3위/16.2)
 - '20년은 팬데믹·저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주액이 전년 比 180% 증가
 - * 유가·경기 등 시장상황과 별개로 대형 프로젝트 낙찰시점이 국별 수주실적에 큰 영향을 미침.
- (공종별 수요) 원유시설과 화학공장 등 산업설비 수주가 최대비중 차지
 - 이외 건축과 토목 부문에서도 꾸준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음.
 - 한편, '21년 하반기 엑스포 개최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며 용역분야 수주액 급증

〈對UAE 프로젝트 수주실적〉

(단위 : US\$ 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3분기
건수	20	15	17	4	7
수주금액	1,608,411	5,336,562	709,378	1,986,584	605,970

자료: 해외건설협회

〈對UAE 프로젝트 공종별 수주액 추이〉

(단위 : US\$ 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3분기
총계	1,608,411	5,336,562	709,378	1,986,584	605,970
산업설비	1,514,451	3,975,385	332,786	1,822,140	391,793
토목	12,202	1,292,069	183,332	111,425	10,507
건축	78,407	69,931	183,964	61,380	187,908
용역	3,341	-823	804	860	15,762
전기통신	10	-	8,492	-9,221	-

자료: 해외건설협회

〈對UAE 산업설비 프로젝트 분야별 수주액 추이〉

(단위 : US\$ 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3분기
총계	1,514,451	3,975,385	332,786	1,822,140	391,793
발전소	-3,624	914,690	0	977,360	0
정유공장	1,373,661	223,841	52	686,569	0
원유시설	0	2,801,454	315,041	42,619	223,885
화학공장	72,853	21,154	0	0	181,229
기타	71,561	14,246	17,693	115,592	-13,321

주: 산업설비 프로젝트 내 세부 분야별 수주액

자료: 해외건설협회

〈우리기업 추진 프로젝트〉

(단위 : US\$ 백만)

연번	프로젝트	발주처	금액	국내기업	계약일자	공정률
1	루와이스 Crude Flexibility Project	ADNOC Refining	2,480	삼성ENG	2018.02~2022.03	89%
2	와슬 1~2구역	Wasl	120	쌍용	2019.05~2022.03	84%
3	데이라 워터프론트 주상복합	Ithra Dubai	40	쌍용	2020.01~2022.07	69%
4	폐열회수처리시설	ADNOC	473	삼성ENG	2018.03~2023.06	68%
5	푸자이라 원유 저장시설	ADNOC Onshore	1,210	SK	2017.11~2023.12	64%
6	푸자이라 F3 독립 발전소	DoE	953	삼성물산	2020.02~2023.04	52%
7	푸자이라 F3 독립 발전소 (해양)	DoE	96	삼성물산	2020.06~2023.04	47%

자료: Meed Projects ('21.3분기 기준)

〈우리기업 관심 프로젝트〉

(단위 : US\$ 백만)

착공예상일	프로젝트	발주처	금액	관심 기업	진행 상황
2021.10	해저 송전 네트워크	ADPower	2,000	한전	입찰참가
2021.11	보르주 4 석유화학단지 (유틸리티&오프사이트)	Abu Dhabi Polymers Co	2,000	GS/삼성ENG/현대	입찰참가
2021.11	북서부 달마 가스전 개발 PCK B	ADNOC	1,200	현대	입찰참가
2021.12	바니아스 북부 주택개발	Modon Properties	260	삼성물산	입찰참가
2023.01	RRE 콘덴세이트 refining trains Debottlenecking & Upgrading	ADNOC Refining	200	GS	입찰참가

자료: Meed Projects ('21.3분기 기준)

■ (성공사례) KOTRA 비대면 마케팅을 활용한 현지 프로젝트 수주

- '20.3월 KOTRA 두바이무역관은 현지 발주처인 UAE 라스알카이마 토후국 산하 폐기물관리청 (WMA, Waste Management Agency)을 방문해 현지 폐기물 소각로 프로젝트를 발굴. WMA 측은 의료폐기물용·인체용·동물용 소각로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시급한 의료용폐기물 소각로 1개 유닛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찰 진행
- 두바이무역관은 '20.4월 '코로나19 대응 핀포인트 화상상담회'를 통해 국내기업 K사를 WMA 측에 소개했으며 이후 후속 상담을 주선하고 교신 과정을 밀착 지원. 노력 끝에 K사는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으며 중동지역 대상 최초 수주라는 성과를 창출
- 발주처인 WMA는 의료용폐기물 소각로 1기를 성공적으로 설치·운영한 후 K사 측에 2차 발주 의사를 전달. 두바이무역관은 '21.6월부터 발주처와 K사 간 2차 납품을 위해 화상상담을 주선하고 거래조건 조율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에 구매오더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

라. 주요 경제협력 의제

① 에너지

- (현황) '에너지전력 2050' 추진으로 청정에너지 개발 및 탄소배출 저감 노력 확대
 - 수소분야 육성 위해 올해만 일본·한국·영국 3개국과 MOU 및 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 경제협력 강화 중
- (협력방향)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원자력 부문 협력 강화
 - ①수소분야 협력: '19.2월 왕세제 방한 계기로 체결된 수소도시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형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운영 논의 등 협력 구체화 ⇒ '21.3월 양국의 수소경제협력 MoU 추가 체결완료

- ②태양광 활용 해수담수화 플랜트 : 수자원·전력부족 동시 해결이 가능한 신기술 개발 및 기자재 생산설비 현지 설립 검토
- ③인근국 원전수출 추진 :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UAE와 협력하에 인근 에너지 부족국 대상 원전사업 제안

〈바라카 원전 호기 시운전 기념우표 발행〉



2 보건·의료

- (현황) ‘세계 정상급 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 정책수립 및 추진 중
 - Vision 2021과 연계해 의료인력 확충, 예방의학, 디지털헬스 등 총 7가지 분야 내 58개 세부 이니셔티브 추진 중
 - 해외병원 및 의료진 유치 통해 예산절감 및 역내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 추진
 - * UAE는 자국민의 의료비용을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환자송출에도 정부예산 투입
- (협력방향) 한국형 병원진출 추진 및 의료인력 교류 활성화
 - ①의료분야 규제완화 : 한국 의료인력·의약품의 UAE 진출 확대를 위한 의료인 면허인정 등급 상향 및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논의
 - ②병원 위탁운영 확대 : 현지 진출 한국인 위탁운영 병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약품·운영시스템 등의 수출 기반마련
 - ③인적교류 확대 : 중증환자 송출 및 현지 의료 인력의 국내연수 추진

3 방산·항공

- (현황) UAE 정부의 방산·항공우주 육성 노력 확대
 - 방산 : 역내 정치·군사적 리크스 상존으로 매년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 지출
 - * ('20년) 19.8억 달러로 GDP의 5.6% 수준 (↔ 전 세계 GDP 대비 평균 국방지출 2.4%)
 - 항공 : 아부다비·두바이의 중점 육성분야로 꾸준한 지원 예상. 최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 주도로 화성탐사선 ‘아말’ 발사성공(‘20.7월) 후 화성궤도에 안착(‘21.2월) 하며 역내 항공우주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 * ‘21.10월 UAE 우주청은 2028년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 탐사를 위해 무인 우주선을 발사할 것이라 발표

- (협력방향) 방산·항공우주 부품 공급망 진입 및 R&D 협력
 - ①방산 : UAE 정부의 기업 육성*에 따른 현지 파트너십·R&D 협력 수요 포착
 - * '21.11월, 주요 방산기업 25개사가 통합된 국영 방산 연합체 'EDGE' 출범
 - ②항공 : 현지 부품 수입수요를 국내 중소 항공/방산기업의 직수출 기회로 활용해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수직계열화*된 생산구조 탈피
 - * 특히 국내 항공산업은 KAI의 해외수주 후 국내 중소기업이 하청 생산해 간접 수출하는 형태로 상위기업의 수주실적 저조가 협력사의 실적감소로 직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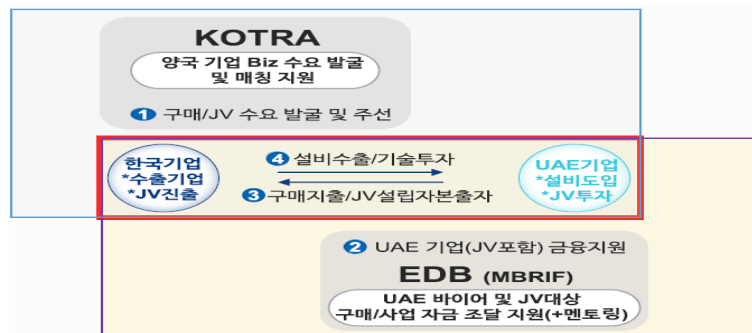
4 농업·식량안보

- (현황) '식량안보전략 2051' 수립 통해 수입선 다변화 및 현지생산 확대
 - 18대 기초 식품분야* 선정 후 자국 내 생산체계 구축 추진
 - * 농식품 12개, 축산농식품 5개, 수산양식 1개 등 총 18개
- (협력방향) 농축수산 분야 경험·기술 공유 및 현지 정책자금 활용 등
 - ①기술교류 및 R&D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 재배 노하우와 현지기후에 적합한 품종개량 등 UAE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교류추진

협력사례	
	한국 농진청은 UAE 정부와 협력해 '19.11월 UAE 샤르자 지방의 알-다이드(AI Dhaid) 일대에서 한국산 벼 품종인 아세미 등을 시험적으로 파종해 수확에 성공. '21년에는 기존(7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 실증에 나설 예정이며 '22년 하반기쯤 파종 예정

- ②현지기관과 한국기업 간 매칭 : 현지 정책금융을 활용한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추진

〈KOTRA·MBRIF 협력모델(안)〉



〈한국과 UAE 간 주요 MOU 체결내역〉

구분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MOU 내용	협약시기
정부	산업부	에너지산업부	에너지분야 협력	2014년 2월 28일
정부	산업부	원자력공사	한국인력 직접 채용	2014년 5월
정부	한수원	원자력공사	원자력 플랜트 서비스 산업 육성	2014년 5월
민간	서울대학교	아부다비석유대학	석유가스분야 공동인력양성	2014년 5월 20일
정부	한국석유공사	아부다비석유공사	석유가스분야 공동인력양성	2014년 5월 20일
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아부다비석유공사	업무 협약	2014년 5월 20일
정부	한국전력공사	바라카원전컴퍼니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협력	2015년 3월
정부	한국석유공사	아부다비석유공사	유전 개발 기술 협력	2015년 3월 03일
정부	보건복지부	샤르자 보건청	보건의료협력	2015년 3월 04일
정부	관세청	연방관세청	세관 상호지원협정	2015년 3월 04일
민간	서울성모병원	VPS 그룹	두바이 검진센터 운영	2015년 3월 05일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수자원부	농업 협력	2015년 3월 05일
정부	외교부	외교부	문화원 설립	2015년 3월 05일
정부	산업부	국제개발협력국	제3국 공동진출	2015년 3월 05일
정부	산업부	아부다비 행정청	제3국 원전 공동진출	2015년 3월 05일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측량청	할랄식품 협력	2015년 3월 05일
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아부다비개발기금	금융 협력	2015년 3월 06일
정부	경찰청	연방정부(내무부)	치안 협력, 태러 대응 협력	2016년 2월 22일
정부	특허청	경제부	상호 업무 협약	2016년 2월 24일
민간	경희대학교	샤르자 대학	학술연구 및 교환학생 운영	2016년 6월 21일
정부	외교부	외교부	상호 입국사증 면제 협력	2016년 9월 21일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청	우주 분야 협력	2017년 1월 31일
정부	보건산업진흥원	두바이 보건청	의료 분야 협력	2017년 5월 24일
정부	산업부	교육부	반도체 인력양성협력	2018년 3월 25일
민간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공사	핵연료 협력	2018년 3월 26일
정부	한국에너지공단	마스다르	재생에너지 투자협력	2018년 3월 26일
정부	한국전력공사	아부다비 에너지부	스마트그리드 협력	2018년 3월 26일
정부	한국가스공사	아부다비석유공사	가스분야 협력	2019년 2월 26일
정부	산업부	기후변화환경부	친환경 산업 협력	2019년 2월 27일
정부	한국석유공사	아부다비석유공사	석유분야 협력	2019년 2월 27일
민간	GS에너지	아부다비석유공사	석유/가스분야 협력	2019년 2월 27일
민간	SK건설	아부다비석유공사	프로젝트 협력	2019년 2월 27일
정부	농촌진흥청	농업식품안전청(AD)	농업기술 협력	2019년 5월 14일
정부	문화부	문화부	상호 문화교류의 해 협력	2019년 11월
정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환경부	스마트팜 연구 협력	2021년 2월 04일
정부	산업부	산업첨단기술부	수소경제 협력	2021년 3월 04일
정부	한수원	원자력공사	한국형 원전 APR 1400 R&D 협력	2021년 3월 22일
민간	아주대학교	원자력공사	에너지분야 R&D 협력	2021년 4월 10일
민간	넥스퍼어	코바이 글로벌	MICE, 마케팅, 콘텐츠 협력	2021년 6월 07일
민간	한전KDN	NAWAH	ICT/디지털 보안 협력	2021년 9월 14일

자료: 경제외교 활용포털

Ⅲ. 진출전략



III

진출전략

- ▶ UAE 시장의 이점(지원정책·청년소비층) 활용 진출모색
- ▶ 에너지·의료 등 수요급증 산업 내 파트너쉽 강화
- ▶ UAE를 테스트베드 및 거점으로 인근시장 진출확대
- ▶ 현지 산업다각화 수요 내 비즈니스 기회 창출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국부펀드·정책금융을 활용한 공격적 투자 ❖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정부의 첨단기술·인프라 도입 적극성 ❖ 평균연령 32.6세로 높은 청년층 비중	❖ 석유 중심의 경제·산업구조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 제조역량 미비로 위기상황 시 리스크 대처능력 ↓ ❖ 작은 내수시장(1천만)과 높은 외국인 비중(90%) ❖ 자국산 브랜드·제품 부족과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 장악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 유가회복(70불선)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개선 ❖ 코로나 사태로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서비스 성장 ❖ 두바이엑스포 개최로 비석유 부문 활성화 ❖ OTT 서비스 성장과 문화·콘텐츠 소비 활성화	❖ 선진국의 환경정책 강화로 주력산업 쇠퇴우려 ❖ 최근 침체에 따른 中·印 저가제품의 시장잠식 ❖ 역내 군사·외교적 리스크 상존(이란·예멘) ❖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회복 둔화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현지 정책금융과 국내 유망 中企·스타트업 간 매칭 ● 청년 소비층을 겨냥한 K콘텐츠·인플루언서 마케팅	혁신 제품·기술로 UAE 시장 공략 (진출기업·산업 다변화)
ST 전략 (강점 활용)	●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용분야 진출확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지속	수요급증 산업 내 현지화·파트너쉽 강화 (그린뉴딜·보건의료)
WO 전략 (기회 포착)	● 엑스포·한류 활용 K제품의 세계적 인지도 제고 ● 온라인 유통망(아마존·Noon)을 활용한 진출 통로 다변화	UAE를 거점으로 인근시장 진출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WT 전략 (위험 대응)	● 정부 전략·이니셔티브에 포함된 역점분야 내 기회포착 ● 농업진흥·식량안보 강화 기조를 진출기회로 활용	산업다각화 수요 내 비즈 니스 기회창출 (대중소 동반진출 추진)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제조업 내 협력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확대 (에너지전략 2050 및 Net Zero 2050 등)
- 최근 선진국(미국·EU)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급성 ↑
-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단가 절감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기반 빠르게 구축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MENA 최초로 ‘탄소중립(Net Zero)’ 선언
 - '21.10월 UAE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직접 나서 파리기후협약과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1,630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 발표
 -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1850년) 대비 1.5oC 이내로 제한
 - 기존 ‘에너지전략 2050’에서 제시한 탄소 배출량 저감목표(70%)를 넘어 ‘온실가스 순배출 Zero’를 신규 목표로 제시했으나 총 투입예산은 동일하게 유지
 -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발전·제조) 내 탄소배출 저감노력 가속화

〈美 기후특사, GCC·MENA 기후행동대담 참석〉



UAE는 '21.4월 GCC·MENA 기후행동대담(GCC and MENA Regional Dialogue For Climate Action)을 개최했으며, 해당 행사에 존 케리 美 기후특사와 알록 샤마 COP26 의장이 참가했음. 대담 참가국들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UN의 기본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방안 논의

자료: UAE 관영통신 WAM

- 수소경제 가속화 위한 공공·민간 분야 내 파트너십 확대
 - '21.1월 아부다비 국영지주사 ADQ와 ADNOC 및 Mubadala 3社간 동맹체결
 - UAE 내 수소경제 확립을 위해 전력·모빌리티·제조업 분야 로드맵 개발·추진
 - 특히, 3社는 그린 및 블루수소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
 - * ADNOC은 석유화학 공정 시 생산되는 부생수소 생산량을 기존 연간 3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증대할 방침
 - * Mubadala도 독일 Siemens 및 영국 BP 등과 협력해 그린·블루수소 생산설비 구축 추진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생산·저장·운송·활용) 전반에서 협력수요 발굴
 - 단순한 발전의 경우 중국(태양광) 및 일본(WTE)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바, 생산된 전력의 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이와 관련, 생산된 재생전력의 형태를 변환해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P2X(Power-to-X) 기술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암모니아가 섹터커플링의 Key로 각광받고 있음.
- (유망분야) 재생에너지·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술
 - (품목)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모듈, 에너지 저장장치 및 수소 연료전지*·혼소발전** 등
 - * 수소연료전지 : 전기분해의 역반응을 이용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열 생산
 - ** 수소혼소발전 : 가스터빈에 수소와 화석연료를 함께 연소시키는 방식, 석탄·LNG 단독 연소 대비 탄소배출이 낮음
 - (기술) CCUS(시멘트·금속·석유화학), 수소환원제철(철강), 분산형 전원, 스마트그리드 등

2-2.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수출통로 다변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역내 최상의 ICT 인프라와 젊은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상거래·결제방식(비접촉·온라인)이 급속도로 확산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UAE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
 - 코로나 사태로 기존 오프라인매장·현금결제 중심의 비즈니스가 온라인매장·온라인결제(카드·스마트페이) 형태로 빠르게 재편 중
 - '20년 UAE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4년 만에 120% 이상 성장
 - * 특히,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내 모바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20년 기준, UAE는 1인당 연간 전자상거래 지출액이 1,648달러로 중동·서남아 지역 중 가장 높음

〈2016~2020년 UAE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US\$ 백만)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e)	2020년(e)
전자상거래	1289.38	1719.12	2137.46	2526.45	2843.45
모바일부문 (비중)	445.60 (34.5%)	636.06 (36.9%)	833.61 (39.0%)	1,035.85 (41.0%)	1194.25 (42.0%)

자료: Euromonitor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장과 기존 오프라인 기업들의 온라인화
 - UAE 전자상거래 시장은 Amazon.ae(점유율 47%)*의 '1강구도' 하, Landmark와 Noon, Namshi 등 현지 플랫폼들이 치열한 2·3위 경쟁 중
 - * '17년,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Amazon이 현지 온라인플랫폼 Souq.com 인수 후 새롭게 출범
 - Carrefour와 Spinneys, Waitrose 등 현지 하이퍼마켓 체인들도 빠르게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고 배송 서비스를 개시
 - * 세계최대 오프라인 쇼핑몰 Dubai Mall도 Noon.com 내 Shop in Shop 형태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수출통로 다변화와 SNS 마케팅 활용
 - 현지 소비자들의 이용이 활발한 Amazon·Noon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업들의 수출통로로 적극 활용
 - UAE의 높은 SNS 이용률을 감안한 SNS 브랜드 마케팅 활용

- (유망품목)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판매·홍보가 용이한 소비재류
 - 최근 K-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 소비재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도 '20년 수출액이 전년 比 79% 증가

〈우리기업의 연도별 對UAE 화장품 수출실적〉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3분기
금액(US\$백만)	14.6	16.1	17.8	31.8	30.0
증감률(%)	45.3	9.9	10.6	79.0	36.3

자료: 무역협회 (MTI 227-비누·치약·화장품 기준)

2-3. 교통인프라 확충·고도화 분야 진출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확대 및 방문 관광객 수 증가로 교통망 확대 필요성 ↑
- 두바이 자율주행 운송전략 등 정부차원의 이니셔티브 추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조밀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차세대 교통수단 도입
 - (드론) '20.7월 두바이 정부는 무인항공기 운영 규제에 대한 법률(Law No.4 of 2020)를 제정했으며 소형공항 및 착륙패드 건설 등 드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짐.
 - (스카이포드) 두바이 도로교통청(RTA)는 영국 BeemCar社와 협력해 현수식 모노레일인 '스카이 포드(Sky Pod)'를 개발, 향후 3년 내 운영에 돌입할 계획

〈스카이포드 모형 탑승시연〉



자료: RTA

- 두바이 자율주행운송 전략(Self-Driving Transport Strategy) 추진
 - '30년까지 두바이 내 운송수단 중 25%의 무인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법안·제도 신설, 인프라 구축,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 다방면 내 기반 마련 중
- 라스트마일 이동 시 활용이 용이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각광
 - 대중교통망 발달이 미비해 최종 교통수단으로부터 하차 후 목적지까지 이동을 책임지는 소형·1인용 모빌리티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지능형교통체계(ITS)와 대중교통망 통합 등 비교우위 분야 내 협력수요 발굴
 - 스마트교차로 시스템과 지역 간 신호 연동, 차량관리(Fleet Management) 등 디지털 도로망 구축 관련 R&D 협력 추진
 - 대중교통망 통합·교차이용 관련 제도·경험 공유 및 시스템 등 기술 이식
- (유망품목) ITS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제품 및 기술
 -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자율주행 및 ITS 관련 기술
 - 전동킥보드(전기스쿠터) 및 공유 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제품

2-4. 의료 인프라 선진화 수요 내 유망기회 발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연방·토후국 차원의 투자 확대 예상
- 토후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의료 수준 격차도 큼 (아부다비·두바이가 의료시스템 발전 주도)
- 아부다비·두바이는 자체 보건당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토후국은 연방보건예방부가 관할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백신·PPE 등 의료용품 자체공급 위한 대외 파트너십 수요 증가
 - (백신) '21.3 UAE 기업 G42 및 Julphar가 중국 국영제약사 Sinophar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코로나19 백신(Hyatt Vax) 현지생산 돌입
 - (PPE) 코로나 사태 초기, 국부펀드 Mubadala의 자회사로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Strata社가 미국 Honeywell社와 협력해 N95 마스크 등 PPE 제품 생산에 착수
- * GCC 최초의 마스크 현지생산 사례로 연간 3천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 중

〈Honeywell & Strata 마스크 생산협력〉



자료: Strata 웹사이트

- 해외병원 및 전문인력 유치에도 총력
 - '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도로부터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다수 유치해 코로나19 검사·진료 현장에 투입
 - * 초청된 인도인 의료 인력들의 자녀 대상 무상교육 제공 및 거주비자 발급 등 혜택제공
 - 이외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 의료인력 유치와 병원 시스템 도입도 활발함.
 - * 클리블랜드 클리닉(美)과 임페리얼칼리지 당노센터(英), 세이크 칼리파 전문병원(韓) 등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의료기기·의약품 수출과 함께 현지진출·파트너십 기회 발굴
 - 원내원(Hospital in Hospital) 방식과 합작병원 개설 등 인력·시스템 수출 추진
 -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백신·치료제 분야 내 R&D 협력수요 발굴
- (유망품목) 코로나19 관련 제품 및 병원관리시스템(Medical ERP) 등 ICT 솔루션
 - 엑스포 무사개최 및 ‘위드 코로나’ 연착륙 위해 의료분야 투자확대 예상
 -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한 ICT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2-5. 현지 농업육성과 식량안보 강화기조를 활용한 기회 창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토의 80%가 사막이며 연간 강우량이 42mm로 담수자원 부족
- 식품의 80%를 해외수입 중으로 팬데믹 등 위기상황 수급차질 불가피
- 식량안보전략 수립 통해 수입선 다변화 및 현지생산체계 구축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책금융·농업펀드 통해 첨단농업 육성 박차
 - 칼리파 펀드* 등 자국민 대상 프로그램 외 아부다비 투자진흥국(ADIO)의 Ag-Tech 프로그램과 같이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 중
 - * 첨단농업 부문 내 'Zaarie(농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며 자국민 대상 금융·비금융 지원

〈ADIO AgTech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주요 지원사항
Ag-Tech 프로그램	- (개요) 아부다비 내 선진농업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상 금융 및 비금융 지원 - (주요분야) ①실내농업기술· ②해조류기반 바이오연료· ③정밀농업 및 농업로봇기술	- '19년부터 3년간 10억 디르함(약 2.7억 달러)의 개발 인센티브를 협약 기업에 분배 - 급여, 장비 비용 등을 포함한 총 R&D 금액의 75%까지 환급 - 건별 상황에 따라 멘토링 등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비금전적 추가 인센티브 제공

자료: ADIO 웹사이트

- 현지 대기업·국부펀드·VC의 농업 분야 투자사례도 점차 증가
 - (Emirates항공)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농업기업인 Crop-One과 4천만 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를 통해 알-막툼 국제공항 인근에 12,000m² 수직농장 조성 중
 - (두바이투자청) UAE 대표 국부펀드인 ICD는 '17년 말부터 미국 보스턴 소재의 팜테크 스타트업인 Indigo Agriculture에 약 2억 달러를 투자해 종자개량 연구 추진
 - * 기온·염도(鹽度) 등 척박한 환경에 내성을 가진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종자개량
 - (Shorooq) 현지 유망 VC인 Shorooq Investments도 알-아인 소재 스마트팜 스타트업인 Pure Harvest의 스마트 온실 조성 프로젝트에 110만 달러 투자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현지 정부정책 활용과 대중소 및 정부·민간 동반진출 추진
 - 외국기업이 수혜할 수 있는 정책금융·농업펀드를 현지 진출·정착 기회로 활용
 - 대기업(초기자금·네트워크)과 중소기업(유망기술·장비) 간 동반진출 활성화
 - * 프랑스 식품 대기업 Danone과 스마트팜 스타트업 Agricoool 간 협업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흔한 비즈니스 모델
- (유망분야) 실내농업과 종자개량 등 Ag-Tech 분야 전반
 - 특히, 실내농업의 경우 IoT를 활용한 생육환경 통제가 필수적으로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장비, LED 등 관련제품 전반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

2-6. 현지화를 통한 국내 산업·인프라 개발수요 타기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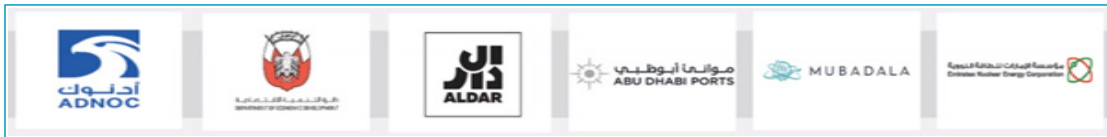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신규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ICV 적용 확대 천명
- 외국인 지분제한의 대폭 완화로 현지 투자진출 걸림돌 제거
- 산업다각화·에너지다변화 위한 PPP·IPP 추진 활성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주요 현지화 프로그램(ICV·ADLC) 간 산식 단일화 추진
 - 현지화 적용범위 확대와 프로세스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2월 ADNOC과 ADDED 간 MOU 체결 및 현지화 점수 산출 공식 단일화 추진
 - '21.3월까지 총 6개 정부기관이 ICV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기관들이 발주하는 신규 프로젝트 입찰 참가 시 ICV 증명서 제출 가능

〈ICV 프로그램 도입기관〉



자료: ADNOC

-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법인설립 사례 증가
 - '21.6월부 연방정부 차원의 지분제한 철폐와 토후국들의 점진적 적용확대로 외국기업의 단독 법인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19.7월 이미 UAE 정부가 상업회사법을 개정해 122개 산업분야 대상 외국인 지분제한을 우선 철폐했으며 식품·헬스케어 분야 내 지분 100% 보유기업 등장
 - * 글로벌 식품기업 Mars('19.8월)와 의료서비스기업 AsterDM('20.2월) 및 철강 제조사 Conares('20.8월) 등
- 현지 IPP 및 PPP 추진 활성화
 - '21.10월 두바이수전력청(DEWA)은 민자발전사업(IPP) 모델을 통해 총 400억 디르함(약 10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현지로 유치했음을 밝히며 청정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IPP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
 - * (두바이) '11년 수전력 분야 내 IPP법(Law No.6 of 2011)을 제정한 뒤 이를 태양광·열에서 활발히 적용 중
 - * (아부다비) '98년 IPP법(Law No.2 of 1998) 제정을 통해 일찍이 수전력 분야 내 IPP 모델 활용

- 최근에는 환경·교통인프라 등 PPP 추진 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두바이)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IPP법과 별개로 '21.9월 PPP법(Law No.22 of 2015)을 발표

* (아부다비) '19.1월 ADIO 설립(PPP관할) 관련 법(Law No.1 of 2019)과 별도의 PPP법(Law No.2 of 2019)을 발표했으며 '20.9월 ADIO 측이 PPP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디지털·그린뉴딜 등 경쟁우위 분야 내 PPP 프로젝트 발굴 및 참가
- (유망분야) UAE 자체 역량이 부족한 DX·환경·에너지·제조 분야 프로젝트

3. 한-UAE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스타트업) 현지 정책금융·산업펀드와 협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MENA를 넘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활발
- 유망 스타트업·중소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산업펀드와 경진대회 및 AC 활용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별 인큐베이팅 시설과 지원펀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현지 정착 및 성장지원 중
 - (District 2020) 엑스포 레거시 사업으로 폐막 후 부지를 Free Zone으로 활용
 - * 연계된 Scale2Dubai 프로그램 통해 혁신 스타트업 선발 및 라이선스·비자발급, 공간제공 등 혜택 제공
 - (MBRIF·ADIO)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제공
 - *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수혜 가능

〈연방 및 주요 토후국 지원방향〉

연방정부	EDB(개발은행)·MBRIF(무함마드빈라시드혁신펀드)등 정책금융 위주 자금지원
아부다비	정부기관(국부펀드·ADIO)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첨단농업 등 미래산업 육성노력
두바이	산업별 Free Zone과 인큐베이팅 시설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정책 활용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UAE의 자본과 한국기업의 유망제품·기술이 결합된 협업모델 발굴
- (유망분야) ICT·농업·물류·환경 등 UAE 정부의 관심분야 내 유망 제품·기술

3-2. (Ag-Tech) 국내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중동시장 진출 본격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연간 농수산식품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 중
- 식량안보 중요성 부각되며 자국 내 생산량 증대 위한 노력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식량안보전략 수립·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 추진 중
 - 18대 기초 식품분야* 선정 후 자국 내 생산량 확대 추진
- * 농식품 12개, 축산농품 5개, 수산양식 1개 등 총 18개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기업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팀코리아’ 결성
 - 농업분야 유망기업 발굴(농촌진흥청)과 현지 정부기관·기업 수요발굴(KOTRA) 등 지원역할 세분화를 통한 기업지원의 전문성 제고
 - UAE를 진출 거점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근 GCC·MENA 진출 추진
- (유망분야) 첨단농업, 스마트 축사, 수산양식 등 농축수산업 관련 비교우위 분야

3-3. (신재생에너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서 협력체계 구축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연방·토후국 차원의 에너지전략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박차
- 수소분야 육성 위해 올해에만 일본·한국·영국 3개국과 MOU 및 협정체결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Key인 수소 분야 내 협력 가속·본격화
 - ('20.9월) 7차 경제공동위 개최 시에도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수소협력 논의
 - ('19.2월) 왕세제 방한 시 한국형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운영 협의
 - ('21.3월) 한국(산업통상자원부)과 UAE(산업첨단기술부)는 수소교역 관련 정책·규제 공유와 수소·탄소재활용 관련 협력 위해 MOU 체결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수소 생산·활용 분야 협력 및 탄소저감 위한 공동의 노력 확대
 - 그린·블루수소의 생산과 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협력관계 구축
 - 석유화학·철강 분야 내 탄소저감기술 상용화를 위한 R&D 협력 추진
 - * 한국과 UAE 양국 모두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 CCUS·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기술에 공통 이해 보유
- (유망분야) 수소 연료전지·혼소발전과 스마트그리드, CCUS 및 수소환원제철 등

3-4. (수송·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분야 수요 발굴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저렴한 유가와 작은 내수시장 규모로 아직까지 모빌리티 내 에너지 전환은 요원
- 버스와 택시 등 상업분야 내 수요가 향후 승용차 부문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가스기술공사) UAE 내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실증 진행
 - '21.4월 가스기술공사는 오는 '25.12월까지 총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대용량 수소생산·충전설비 구축에 돌입
 - * 1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내 실증부지 및 수소버스 확보 후 2단계는 UAE 현지에서 추진 예정
- (현대차) 현지 하이브리드 택시 공급
 - '20년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산하 두바이택시회사(DTC) 및 민간 택시회사 'Cars Taxi'에 쏘나타 하이브리드 택시 총 1,232대 공급
 - * 탄소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에도 친환경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상용차·운임차량 교체수요 등을 진출기회로 활용
 - UAE는 아직까지 모빌리티 분야 내 에너지 전환이 요원한 상태이나 향후 정부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노력으로 상용차·택시 등에서 교체 수요 발생 예상
- (유망품목) 수소·전기·하이브리드 차량 및 관련 기술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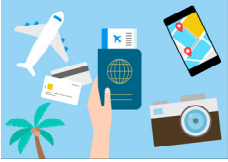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5
의료기기 	수입액('20/US\$백만)	561	대한수입액('20/US\$백만)	15
	선정사유	- 의료목적으로 UAE를 찾는 관광객 수는 연간 35만 명으로 아랍국가 중 최대 - 코로나 사태를 계기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가 지원·투자 확대 예상		
	시장동향	- 자국 내 제조기반 미비로 일부 의료용 소모품(Medical Disposable)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 - 두바이·아부다비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용 호텔을 개설해 의료 서비스 예약과 비자 발급, 숙박·투어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		
	경쟁동향	'20년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미국(19.6%), 독일(16.2%), 네덜란드(14.1%), 중국(10.6%), 벨기에(5%)이며, 한국은 10위(2.7%) 차지		
	진출방안	- 현지 진출 한국 병원(종합병원, 척추/관절병원, 치과 등)과 협력해 의료용 기자재 수출 - 의료 분야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공급 가능한 바, 파트너 발굴 노력이 선행돼야 함		
품목명 2	HS Code	8507	수입관세율(%)	5
정지형변환기 (ESS 장치) 	수입액('20/US\$백만)	490	대한수입액('20/US\$백만)	94
	선정사유	- UAE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며 밸류체인(생산·저장·운송·활용) 전반에서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시장동향	- 주로 태양광·열 발전과 연계되고 있으며, 아부다비(EWEC)와 두바이(DEWA) 주도의 프로젝트 추진 - 단순한 전력생산의 경우 중국의 저가형 패널과 경쟁이 불가피한 바, 이후 단계인 저장·운송·활용 등에서 우위 선점 필요		
	경쟁동향	'20년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중국(30.8%), 한국(19.4%), 인도(7.9%), 독일(5.8%), 태국(5.4%)		
	진출방안	- 생산된 전력의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소 등 P2X(Power-to-X) 기술 유망 - UAE 전력망 프로젝트 하도급 참여		

품목명 3	HS Code	852580	수입관세율(%)	0
 CCTV	수입액('20/US\$백만)	524	대한수입액('20/US\$백만)	10
	선정사유	- IoT를 활용한 환경통제 방식의 실내용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영상 장비(CCTV) 수요 확대 예상 - 이외, 최근 두바이엑스포 개최에 맞춰 완공된 쇼핑몰 등 상업시설 증가로 보안용 CCTV 수요 증가 예상		
	시장동향	- 식량안보전략 수립을 통해 실내 수경재배, 수직농장 등을 활용한 현지생산체계 구축 추진 - 산업용 외에도 최근 영유아·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가정용 CCTV 수요도 점차 증가 추세		
	경쟁동향	'20년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중국(35.9%), 일본(8.1%), 대만(7.7%), 홍콩(7.4%), 헝가리(5.9%)이며, 한국은 10위(1.8%) 차지		
	진출방안	- 수요처 발굴을 위한 농업·보안 관련 전시회 참여 * (농업) GFIA, AgraME / (보안) Intersec		
품목명 4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5
 화장품	수입액('20/US\$백만)	449	대한수입액('20/US\$백만)	26
	선정사유	- K콘텐츠(음악·영상)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 확산으로 화장품·소비재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 한국化妆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스토어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 -코로나 사태에도 '20년 對UAE 화장품 수출은 전년 比 79% 증가		
	경쟁동향	'20년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프랑스(27.2%), 미국(14%), 독일(8.7%), 한국(5.7%), 영국(4.2%) 순임		
	진출방안	- 온라인플랫폼·SNS의 대중화로 판매 및 홍보 전략이 다양화된 만큼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5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5
 가공식품	수입액('20/US\$백만)	39	대한수입액('20/US\$백만)	7
	선정사유	- 인스턴트면 등 드라마와 유튜브 콘텐츠에 노출된 제품이 인기를 끌며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시장동향	- 한인 식료품점을 제외한 현지 대형 하이퍼마켓(Carrefour, Spinneys, Choithram 등)에서도 한국 가공식품류를 활발히 판매 중		
	경쟁동향	'20년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은 한국(13.4%), 말레이시아(10.2%), 인도네시아(7.6%), 사우디(7.2%), 싱가포르(5.9%) 순임		
	진출방안	- 육류 및 육가공품이 포함된 식품은 할랄인증 취득이 필수로,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HCC)와 할랄협회(KOHAS)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취득 가능 -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외에도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유튜버와의 협업을 마케팅 톨로 활용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선정사유	- '20년 기준 국가 평균연령이 32.6세인 젊은 시장이며 95%를 상회하는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소비가 왕성함. - 코로나19로 OTT, e스포츠, 웹툰 등 온라인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
	시장동향	- 대표적 OTT 플랫폼 Netflix UAE의 '21년 인기 콘텐츠 순위에 한국 드라마 다수* 포함 * 빈센조, 오징어게임, 갯마을 차차차 등 - 오프라인 영화관에서도 일부 한국작* 개봉 * 기생충 모가디슈, 담보 등 - 웹툰의 경우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등 한국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장 상위 점유 * '20.5월 Google Play 매출 기준 상위 10개 웹툰 앱 중 한국 앱이 6개 (자료 : KOCCA)
	경쟁동향	- 스트리밍 비디오 시장 내 Netflix, Amazon Prime Video, Starzplay, OSN 등 다수 기업이 진입하며 경쟁 과열 - 자국산 콘텐츠 부족으로 할리우드와 발리우드 등 해외 콘텐츠가 높은 인기 구가
	진출방안	- 현지 인기 콘텐츠와 연계한 제품·서비스 출시 - UAE 내 한류를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품목명 2		
 관광	선정사유	- UAE는 공격적인 백신접종을 통해 '21.10월 초 코로나 극복을 선언하며 인·아웃바운드 관광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년 한-UAE 양국 수교 40주년을 기점으로 상호 관광 교류 본격화
	시장동향	- 빠르게 '위드 코로나' 체제로 돌아서며 '두바이 엑스포 2020' 개최 등 자국 관광 산업 활성화 박차 - '21.3분기 UAE의 아웃바운드 여행은 약 190만 건으로 이미 '20년 총 여행건수인 120만 건을 상회
	경쟁동향	- 전체 UAE발 해외여행 건수 중 GCC 국가 여행 비중이 37%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이외 유럽국으로의 여행도 활발함.
	진출방안	- 의료 및 한류 콘텐츠 등 타 유망산업과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필요 - 비대면으로 한국 관광영소를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해 추후 실제 관광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메타버스·VR 활용 콘텐츠 개발

품목명 3		
 핀테크	선정사유	- 두바이는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핀테크 부문에서 세계 105개 도시 중 24위를 차지했으며, 중동에서는 텔아비브에 이어 2위를 기록 - '16년 중동 최초로 핀테크 샌드박스를 출범해 핀테크 테스트베드로 적합한 환경 보유 * ADGM RegLab(아부다비) 및 ITL Program(두바이)
	시장동향	-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매장·현금결제 중심의 비즈니스가 온라인매장·온라인결제 형태로 재편 -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며 핀테크 수요도 증가 - 하이퍼마켓 Carrefour가 중동 최초의 체크아웃프리(Check-out free) 상점을 개점
	경쟁동향	- Emirates NBD, ADCB 등 기존 상업은행 - BNPL*(Buy Now Pay Later), 네오뱅크**(Neo Bank) 등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 무이자 혹은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후불결제 ** 인터넷·모바일 전문 금융기관
	진출방안	- 온라인 결제 서비스 외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등 부가서비스가 통합된 플랫폼 수출
품목명 4		
  농수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 UAE는 고온 기후, 저조한 강수량, 농토 및 담수원 부족 등 환경적 요인으로 식량자급률이 극히 낮아 이를 극복하고자 농수산품의 현지 생산 역량 강화에 적극 투자 중
	시장동향	- 컨테이너 재배, 스마트온실, 수직농장 등 어그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 - 원예 등 농업 분야 외 수산양식·축산 분야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경쟁동향	- 이미 Crop-One(미국), Agricoor(프랑스) 등 미국·유럽 기업들이 진출해 현지 기업과의 협업 중 - UAE·이스라엘 간 국교회복 후 실내·첨단 농업분야 내 양국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진출방안	- 스마트팜·양어장·축사 등 농축수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IoT 기지재 및 종자개량 기술 수출 - 농수산업에서 파생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EXPO	2022 두바이 한국우수상품전	1.16(일)~18(화) / 두바이(DEC)
2	전시회 (한국관)	[P3] 2022 UAE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2.1(화)~2.3(목) / 두바이(DWTC)
3	전시회 (한국관)	[P3] 2022 UAE 두바이 피부과 전시회(Dubai Derma)	2.27(일)~3.1(화) / 두바이(DWTC)
4	전시회 (한국관)	[P3] 2022 UAE 두바이 교육장비 전시회(GESS)	3월(잠정)/두바이(DWTC)
5	EXPO	한국관 팝업스토어연계 상품전	3월(잠정)/두바이
6	투자유치	AIM2022연계 국가 IR	3월(잠정)/두바이(DEC)
7	전시회 (한국관)	[P3] UAE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6월(잠정) / 두바이(DWTC)
8	스타트업	ADIO 국부펀드 투자유치 핀포인트 상담회	3분기 / 두바이
9	전시회 (한국관)	[P1] 2022 UAE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GITEX)	10월(잠정) / 두바이(DWTC)
10	전시회 (한국관)	[P2] 2022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5)	12월(잠정) / 두바이(DWTC)
11	소비재	K-Lifestyle in Middle East	10월(잠정) / 두바이
12	소비재	대표 소비재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2~3분기 / 두바이

■ (EXPO) 한국 우수상품전

- 일시/장소 : 1.16(일) - 1.18(화) / 두바이(Dubai Exhibition Centre)
- 참가규모 : 국내기업 54개사, 해외바이어 200개사 등
- 주요내용 : 혁신기술(Mobility, Opportunity, Sustainability), K-뷰티 전시·상담

■ (소비재) K-Lifestyle in Middle East

- 일시/장소 : 10월 / 두바이
- 참가규모 : 국내기업 50개사, 해외바이어 100개사
- 주요내용 : 혁신소비재, K뷰티분야 국내기업-바이어간 일대일 상담

■ (스타트업) ADIO 국부펀드 투자유치 핀포인트 상담회

- 일시/장소 : 3분기 / 두바이
 - 참가규모 : 국내기업 10개사, ADIO, 유관기관 및 현지 VC 다수
 - 주요내용 : ADIO* 투자방향 및 지원분야 안내 / 1:1 투자상담 및 네트워킹 행사
- * 아부다비투자사무소(ADIO) : 아부다비경제개발부(ADDED) 산하 투자기관, Series B 이상 스타트업과 협업

■ (투자유치) AIM(Annual Investment Meeting) 연계 국가 IR 및 기업 피칭

- 일시/장소 : 3월 / 두바이(Dubai Exhibition Centre)
- 참가규모 : 추후 확정 및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국가 IR 및 中企·스타트업 피칭 / 국부펀드 및 주요 투자사 1:1 상담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라마단	2022.4.2~5.2	
한-UAE 수교 41주년	2022.6.18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0 Dubai Expo	2021.10.1~2022.3.31	역대 최대규모 등록엑스포
Global Islamic Economy Summit	미 정	두바이 경제부 주관
Global Business Forum Africa	미 정	Dubai Expo 연계 추진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두바이 보안장비 전시회(Intersec)	2022.1.16~1.1.18	
아부다비 신재생에너지 전시회(WFES)	2022.1.17~1.19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두바이 아랍헬스 전시회(Arab Health)	2022.1.24~1.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두바이 의료기기 박람회 메드랩(Dubai Medlab)	2022.1.24~1.27	
두바이 치과기자재 박람회(AEEDC DUBAI)	2022.2.1~2.3	치과기자재산업협회 공동주관
두바이 걸프 식품 전시회(Gulfood)	2022.2.13~2.1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두바이 더마, 미용 박람회 (Dubai Derma)	2022.2.27~3.1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와공동주관
두바이 연례투자회의 (Annual Investment Meeting)	2022.3.28~3.3	
두바이 건축기자재전시회(Big 5)	2022.9.18~9.21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공동주관
아부다비 수전력 전시회(WETEX)	2022.10.18~10.20	
두바이 뷰티월드(Beauty World Middle East)	2022.10.31~11.2	
아부다비 국제 방위산업전 (IDEX)	2023.2.19~2.2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
아부다비 국제 석유박람회(ADIPEC)	미 정	
두바이 에어쇼(Dubai Airshow)	미 정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
두바이 국제플라스틱 산업전(ArabPlast)	미 정	
두바이 교육기자재 박람회(GESS DUBAI)	미 정	과학기술협동조합과 공동주관
아부다비 농업 혁신 포럼 및 전시회 (GIFA)	미 정	
아부다비 축산 박람회(VIV MEA ABU DHABI)	미 정	
두바이 실험기자재 박람회(Dubai ARAB LAB)	미 정	한국과학기술기공업협동조합 주관
두바이 방송통신 박람회(CABSAT)	미 정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미 정	아인글로벨과 공동주관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GITEX)	미 정	KOTRA 단독주관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 [한국무역보험공사] 아랍에미리트 국별 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정상인수	정상인수 * 중계무역은 개별심사

* 현 국별 인수방침은 '21.12.29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조사팀(02-399-7177)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content/contentViewD.do?brdUpperCode=A>)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정상인수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개별심사	한도(인수한도, 보상한도 및 보증한도를 말함) 책정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회전문용을 원칙으로 함. (잠정한도, 자동한도 불가)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황준혁	과장	두바이무역관	+971 4 450 4360 (106)	junhyeok@kotra.or.kr
2	윤수한	과장	중동아프리카CIS팀	02-3460-7657	shyun@kotra.or.kr

KOTRA자료 21-285

2022

아랍에미리트 진출전략

발 행 처 KOTRA

발 행 인 유정열

편 집 인 경제통상협력본부

발 행 일 2021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06792)

전 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140-2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 아랍에미리트 진출전략

